



마음 일자리 대외확산 포럼

# 행동이 아시네요

Season2

2021년 10월 29일(금)

14:00~16:0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포럼 소개]



<b>포럼소개</b>	마을일자리 연구 및 포럼 진행경과 소개	이은미 / 서울마을센터
<b>주제발제</b>	서울 마을형 일자리 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 공유	우성희 / 듣는연구소
<b>발제1</b>	마을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가치	정건화 / 한신대학교
<b>발제2</b>	좋은 일의 기준 : 일의 의미와 돌봄의 가치	황세원 / 일in연구소
<b>발제3</b>	주민관점에서 본 마을일자리의 필요성	이승희 / 송파구
<b>질의응답</b>		

2021.10.29

# 서울 마을형 일자리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울 마을의 시민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듣는연구소 @마을 일자리 대외확산 포럼

# 연구 개요

- ✓ 제목: 서울 마을형 일자리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 연구진: 듣는연구소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 공동연구
- ✓ 기간: 2021. 5 - 10
- ✓ 목적: 마을일자리 개념 정의와 특징 도출, 이를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모델 제안
- ✓ 내용
  - 마을일자리 특성 및 개념 정의
  - 기존의 서울시 마을일자리사업 고찰
  - 새로운 서울시 마을형일자리모델과 정책화 방안 제언
- ✓ 범위: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의 내용에 해당하는 마을 일자리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 필요성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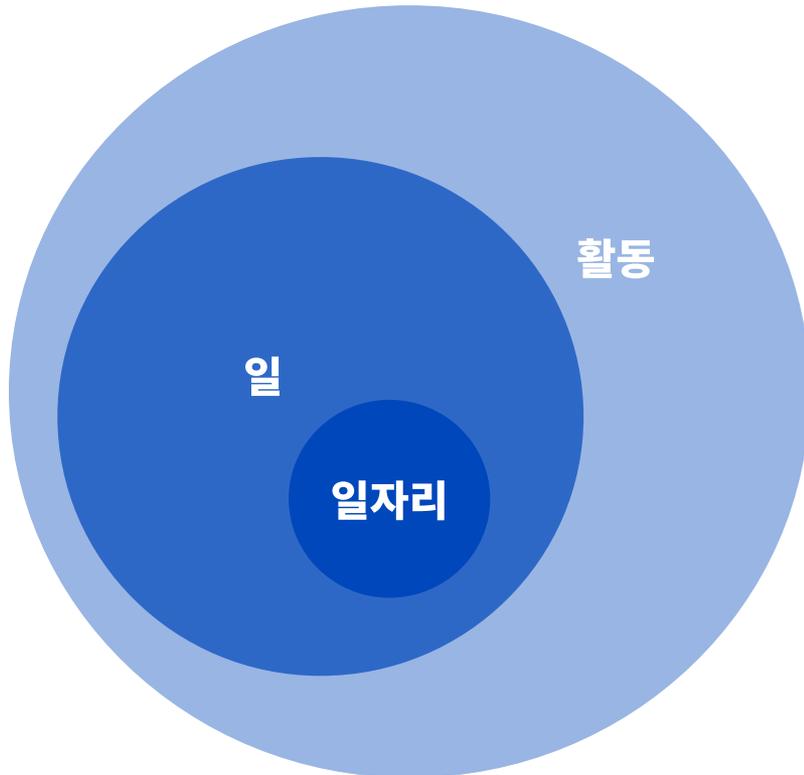
- ✓ 일자리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변화로 지역 중심 일자리의 중요성 대두
  - 저성장과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
  -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부각된 동네 생활권
  - 시민수당(광주광산구), 참여소득(통영) 등 주민 참여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시도
- ✓ 기존 마을·자치 영역 내 일자리 개념과 정책의 한계
  - 마을정책 추진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질적 양적 성장으로 높은 역량과 많은 에너지를 요하게 되었지만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소진, 지속성의 위기 제기
  - 그간 여러가지 공적 보상 논의, 일자리사업 시도가 있었지만 고용증대를 목표로 한 기존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마을 일자리사업의 미스매치로 한계

## 필요성

- ✓ 마을공동체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 인정 및 보상책 마련
- ✓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일자리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공일자리사업 모델 제시

# 용어

## “마을공동체활동”



### 마을공동체활동

마을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공익적 활동

활동

- 금전보상 없는 자발적 참여와 행동

일

- 활동에 비해 강도나 깊이, 집중도, 지속성이 높은 상태

일자리

-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
- 일+보수 결합된 개념
- 취업노동 뿐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주 등도 포함(통계청)

일자리  
사업

- 일자리의 유지 발전을 위해 공적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정책 사업

# 연구질문

## 마을일자리 특징 파악

- ✓ 마을일자리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 지리적 마을 범위의 모든 일자리를 뜻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 활동과 일자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영리 일자리, 행정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가?
  - 마을일자리 내용적 특징은 무엇인가?
  - 마을일자리 형태적 특징은 무엇인가?

## 마을일자리사업 설계

- ✓ 마을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 마을일자리에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존 마을일자리사업은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가?
  - 마을일자리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 설계와 운영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 질 나쁜 노동이 되지 않기 위한 마을일자리사업의 설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 연구 과정

연구내용	연구방법	세부내용
마을일자리 개념과 특징 파악	이론고찰	일자리이론 검토 · 스터디 공동체이론 검토 · 스터디
	전문가자문	마을노동 선행 연구자
	문헌분석	선행연구 검토 19년 마을일 심층면담 자료 분석
	심층면담 포커스그룹인터뷰	마을일자리사례 3팀(5인) 심층면담 마을일자리경험자 3그룹(13인) 포커스그룹인터뷰
기존의 마을공동체 관련 공공일자리사업 분석		
마을형 일자리사업 모델링 및 지원방안 제안	실무진 간담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센터 실무자 4인 간담회 자치구 마을센터 실무자 1인 인터뷰
	문헌 고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념과 특성 고찰 유사한 일자리사업모델 검토
	모델링 검토 워크숍	현장 전문가 3인 검토
	전문가 자문	50+재단 일자리사업 실무자 인터뷰 서울시의원 자문 경제·돌봄·행정 전문가 자문

서울 마을형 일자리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울 마을의 시민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 탐색

# 문헌분석 :

## 2019년 마을일자리 심층면담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9년 마을일자리 현황 및 쟁점 정리를 위한 FGI' 제목의 내부 문서.  
일자리형태(마을일자리, 일거리) 수행업무 분야(마을자치기반 조성, 마을생태계 활성화로 구분)18인을 선정해 심층면담한  
인터뷰 녹취록 자료를 분석하여 마을일자리의 특징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함

### 1. 마을 일자리 특징

#사람 #관계 #함께 #도모 #매개자 #공동체적 접근 #호혜성  
#일상성 #실천성 #주체성, 자발성 #불명확하며 포괄적인 직무  
#비금전적 보상 #비영리성 #비경제적 가치

### 2. “활동이 노동될 때” 내러티브

### 3. 마을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화가 필요한 부분 #사회적 인정, 경력화  
#전문 역량: 역량을 키울 교육 시스템 필요  
#기본 노동조건 # 유연 안정성 # 명확한 근로 기준과 계약  
# 역할과 직무 명확 (명확성 정도에 대해 이견이 존재)

# 문헌분석 : 선행연구

마을활동가 직업 특성 연구  
김동민, 정석(2019)

- 서울시의 마을활동가 관련 명칭은 활동가, 코디네이터, 리더, 상담원, 강사 등 30개 이상
- 마을활동가의 월급 평균 69만 7천원, 근로시간은 평균 80시간 42분
- 마을활동가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계속성, 윤리성, 사회성이 충족되는 집단이지만 **경제성은 충족하지 않는 활동가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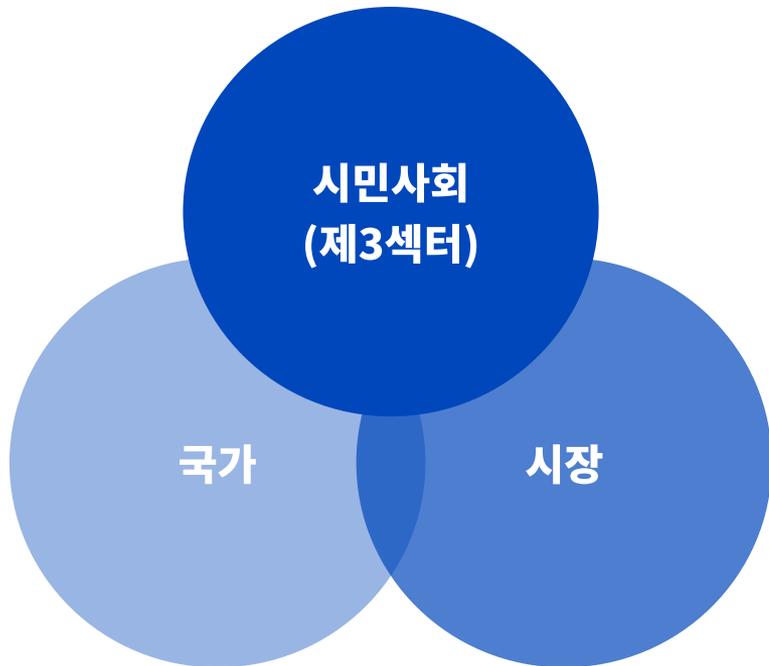
마을공동체 일자리, 일거리 효과 연구  
조달호, 유인혜(2016)

- 인건비 전체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마을기업으로 갈수록 의존도가 낮음  
일급이 높은 반면 월급이 낮음. 사업기간이 짧고, **일의 형태가 비상근, 간헐적 참여 형태가 다수인 마을 활동 특성 반영**
- ‘일거리’에 해당하는 참여 **인력들은 돈벌이보다 사회참여 일환으로 참여**

마을지원활동가 지원 체계 연구  
이희량, 이은미 (2018)

-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일상적인 사회적 노동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와 마무리를 위한 사전사후 활동 시간을 필요
- 마을지원활동가는 조직 소속감은 높이되 **근로 형태에서 상근직이 아닌 대안적 방식(유연한 형태의 근무) 선호**

# 문헌분석 : 선행연구



## 마을일자리의 범위와 특징

- 공익활동, 비영리활동, 자원봉사, 사회적경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모두 마을공동체활동을 포함
- 포괄적으로 국가와 시장이 아닌 '제3섹터'에 포함: 국가와 시장이 아닌 영역으로서 사회적목적 추구, 비영리성, 비정부적 특성 등을 포함
-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나 협치, 사회서비스 등은 국가 영역과, 직능단체 등은 시장과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으며,
- 큰 개념에서 사회적경제나 비영리에 해당하지만 조직화 되지 않은 활동 주체들이 많고, 비공식적 활동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

공석기, 유지연(2017) [기빙코리아 2017] 한국비영리섹터 지형 분석, 아름다운재단  
최상미, 신경희, 이해림 (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방안. 서울연구원  
주성수 (2019)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론고찰1 : 관련 노동 개념

## 임금노동 외의 노동 개념

- 노동은 임금노동 외에도 인간으로서 다채로운 활동을 포함한 자율노동, 자활적 노동(앙드레고르), 시민참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민 노동(울리히벡) 등 다양한 차원의 개념이 있음
- 일(노동) 개념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사회적인 임금노동(wage labour)만으로 인식된 것은 근래의 일이며, 탈산업사회에서 새롭고 다양한 노동과 그로 인한 사회적계약의 필요 대두

## 시민노동

- 시민노동 (citizen work):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벡 1996-97년 바이에른-색슨 미래위원회에 참여하여 “전통적인 노동자 중심의 산업사회의 종말”을 예언하고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립하려는 온건한 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영역으로서 취업”인 시민노동을 제안
- 시민노동은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며 시민수당의 형태로 급여를 지불받음
- 급여의 수준은 실업급여나 사회부조, 복지혜택보다 높은 수준
-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어야 함

# 이론고찰2 : 공동체적인 일의 내용

- ✓ **현대 도시에서 마을공동체:** 개인화된 사회에서 도시공동체는 농경사회의 공동체와 같이 함께 살고 일하는 삶의 단위보다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현대적 공동체가 존속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사회적자본의 개념
- ✓ **결속적 사회자본을 넓히는 일**

##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

: 사회적 집단들을 내부적으로 결속시키고 의무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됨

##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 호기심 속에서 개방적으로 이방인을 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이방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는 가운데 형성됨

(Putnam)

결속적 사회자본은 동네에서 작은 모임이나 활동들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반면, 교량적 사회자본을 늘리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 다른 그룹 간의 협력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 역량을 요할 수 있음

결속적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교량적 사회자본이 원활하게 형성됨. **지리적 마을**이라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의 결속적 사회자본을 토대로 교량적 사회자본을 넓힘으로써 **지역사회의 가치와 문화, 제도 및 복리를 증진하는 일**

# 소결

## 지리적 마을 범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자리를 지칭하는가?

지리적 마을 범위 내에서 국가와 시장이 아닌 제3섹터의 영역  
사회적자본의 확대를 통해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일  
시민 참여적 일자리

## 향후 조사분석을 통해 고찰할 주요 이슈가 있는가?

경제적 보상이 없이도 마을일자리가 작동하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유연하면서 안정성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선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을일자리 특성에 맞는 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직무와 역할의 명확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한다”가 의미하는 마을일자리 전문성은 어떠한 수준인가?

서울 마을형 일자리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울 마을의 시민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 조사

# 심층면담

마을일자리 형태 유형별 경험자 심층면담

마을일자리 진입 및 형성 과정, 개인의 삶에서 맥락, 마을일자리 작동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목적

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  
비영리단체 운영

30대, 여

활동분야: 청년주거, 청년정책제안,  
지역협치, 지역청년커뮤니티, 성평등한  
지역문화 구축, 시민교육, 청년교육 등

중간지원조직 일자리 경험  
비영리단체 운영

50대, 여

활동분야: 네트워크, 조직가.

마을일 경험:  
현재 마을 비영리단체 이사  
전 자치구마을센터, 찾동추진단 대표

마을일 사업장  
문화예술 협동조합

40대 남 (대표)  
20대 여 (직원)  
30대 남 (조합원)

활동분야: 문화예술

시사점:

개인의 필요와 마을공동체 활동이 만나는 과정

일을 통해 역량이 향상되는 과정

마을일자리 사업장이 운영되는 방식

지역사회 단위 활동의 특징: 일상성, 주민주체성

- 탐색을 통해 도출한 마을일자리의 특성(제3섹터, 공동체성)을 반영한 일자리 경험을 한 사람
- 무보수의 활동이 아니라 수입을 발생하며 마을 일을 하는 사람. 다양한 형식(풀타임,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역 고려

	자치구	성별	나이	경험한 마을일자리
FGI 1차 (8월5일)	마포구	여성	43	공간운영 협동조합, 시민단체
	노원구	여성	49	의료협동조합
	강서구	여성	52	마을지원활동가, 자치구생태계지원단장. 마을단체 대표
FGI 2차 (8월9일)	성북구	여성	43	마을강사, 마을기록단, 마을공동체 공무원
	서초구	여성	51	권역 NPO센터, 작은도서관 활동가
	서초	여성	51	찾동마을사업전문가
	구로구	여성	35	지역 시민단체 상근자(네트워크 전담)
	구로구	여성	63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코디, 마을지원활동가
FGI 3차 (8월10일)	동작구	남성	55	마을미디어
	강북	남성	38	마을연구자
	영등포	남성	46	마을 공간, 마을 기금 운영자
	양천구	여성	39	자치구 마을공동체센터, 도시재생센터 마을공동체 업무
	도봉구	여성	45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 가. 마을 활동

범주	개념
1. 마을활동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필요에 의해</li> <li>• 일로 진입함</li> <li>• 권유를 받아 시작</li> </ul>
2. (일과 다른) 마을활동만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권 : 내용, 강도</li> <li>• 즐겁게</li> </ul>
3. 마을활동과 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과 일의 순환</li> <li>• 활동하는 모두가 다음 단계로서 마을 일을 하지 않아도 됨</li> <li>• 마을활동이 마을일의 원류</li> <li>• 일자리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있어 일자리가 됨</li> <li>• 마을활동과 일은 상호 지지하며 활력 부여</li> </ul>

## 나. 마을 일

<p>4. 마을 일을 하는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관심사</li> <li>• 가치에 맞는 일</li> <li>• 싫지 않은 일</li> <li>•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일</li> <li>• 필요한데 비어있는 일</li> </ul>	<p>8. 마을 일의 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적이지 않은 일</li> <li>• 가치지향적인 일</li> <li>• 삶과 밀접한 일</li> <li>• 당사자성과 주체성이 있는 일</li> <li>• 지역 애정과 관심에서 하는 일</li> <li>• 주민 누구나 의욕있다면 할 수 있는 일</li> </ul>
<p>5. 활동과 다른 마을 일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션을 성취해야 함</li> <li>• 체계적 방법을 요함</li> <li>• 적극적이고 능동적 일 계획</li> <li>• 책임과 무게 요함</li> <li>• 성과 요함</li> <li>• 재미 없어도 해야 할 일</li> <li>• 마을에 필요한 일</li> <li>•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일</li> </ul>	<p>9. 마을 일의 전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고 역량을 키워야 할 수 있음</li> <li>• 전문성을 요함</li> <li>• 경험을 통해 얻는 전문성</li> <li>• 공과 사를 넘나드는 역량</li> <li>• 다른 분야에도 역량이 발휘되는 전문성</li> </ul>
<p>6. 마을 일의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 보상 없이도 하는 일</li> <li>• 보수와 비례하지 않음</li> <li>• 비물질적 보상이 있음</li> </ul>	<p>10. 마을 일 하는 사람의 포지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과 대립하기도</li> <li>• 건강한 견제</li> <li>• 행정의 돈이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일</li> </ul>
<p>7. 마을 일의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이 못하거나 안 하는 일</li> <li>• 의견을 모으고 동의를 구하는 일</li> <li>• 공공성을 띤 일</li> </ul>	<p>11. 활동성(운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확대</li> <li>• 현 재도에 대한 대안을 찾음</li> <li>• 삶과 균형을 갖춘 운동성</li> </ul>

## 다. 마을 일자리

<p>12. 금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 보상이 있어서 집중, 일의 질이 향상됨</li> <li>• 생계유지가 안되면 지속 어려움</li> <li>• 생계유지가 되지 않으면 마을을 떠나서 일함</li> <li>• 마을 일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듦</li> </ul>
<p>13. 단기적 지원금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속성 없음</li> <li>• 단기 일자리사업 지속성 약해</li> <li>• 뉴딜일자리 외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가 없었음</li> </ul>
<p>14. 일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파트타임 유용</li> <li>• 일거리 풀도 확대 필요</li> <li>• 봉사자에게 소정의 활동비 필요</li> </ul>
<p>15. 보수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유지 기능 수준</li> <li>• 일에는 합당한 보수 필요</li> <li>• 마을 일로 돈을 벌지는 못하는 수준</li> </ul>
<p>16. 필요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을 요함</li> <li>• 금전 보수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들임</li> </ul>
<p>17. 만들어지는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의 사각지대</li> <li>• 마을비즈니스로 일자리 운영</li> <li>• 활동하며 만난 사람들 일자리를(사업장) 만듦</li> <li>• 활동하며 만난 사람들을 (개별) 일자리로 연결함</li> <li>• 마을일 중에는 인건비 총당할 만큼 수입 발생 어려워</li> </ul>

## 다. 마을 일자리

18. 일자리에 대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필요에 대한 공동체 합의 필요</li> <li>• 인정과 합의 없는 인건비는 갈등 유발</li> <li>• 세금으로 일한다는 책임감</li> </ul>
19.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에는 활동가 성장 지원하는 역할자 없음</li> <li>• 사업비와 인건비 외 성장을 위한 공적 비용지원은 없음</li> <li>• 전문성을 갖도록 마을이 비전과 기회를 제공함</li> <li>• 마을활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해야</li> <li>• 지역 편차 없이 일관된 활동 가치에 대한 교육 필요</li> </ul>
20. 마을 일자리를 위한 마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에서 역량있는 주민을 흡수할 장 필요</li> <li>• 마을 지역의 조직 인프라 튼튼해야</li> <li>• 지역일 하는 상근자와 단체가 있어야 풀 넓어져</li> <li>• 모임과 네트워킹으로 새로운 일자리 생겨</li> <li>• 지역단체와 네트워크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됨</li> <li>• 개별 지원사업 성과보다 활동과 모임의 성과에도 투자해야</li> <li>• 모임이 일자리로 갈 시간에 대한 지원 필요</li> <li>• 단체, 기관의 실무자보다 지역이 공유할 사람을 일자리로</li> </ul>
21. 공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일자리 사회적 인정 필요</li> <li>• 마을일은 공공성을 띄므로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 있음</li> <li>• 비영리적 특성으로 비용자립이 어려운 일</li> <li>• 자생력을 고려한 지원 필요</li> </ul>
22. 일자리로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내용과 역할 불명확</li> <li>• 논의되는 범위가 넓은</li> <li>•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불분명한 노사관계</li> </ul>

## 라. 일자리사업

<p>23. 문제의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 해야</li> <li>• 활동의 성공사례가 일자리여서는 안됨</li> <li>• 마을일자리 상위 개념은 마을활동임</li> <li>• 공공의 마을일자리 한정된 풀에 경쟁하게 됨</li> <li>• 여러, 다양한 사람에게 일자리 기회 필요</li> <li>• 일자리가 개인 경력보다 지역의 역량으로 키워져야</li> <li>• 생계유지 목적의 일자리로는 권장 못함</li> </ul>
<p>24. 일자리사업 지역 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사업 계획에 지역이 결정해야</li> <li>• 행정, 회계 틀에 구속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 필요</li> <li>• 주민 주도 예산</li> </ul>
<p>25. 일자리 셋팅과 운영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의 내용, 역할, 포지션이 정해져있으면 안 돼</li> <li>• 마을일자리 중에서도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역할 구분 반영돼야</li> <li>• 일자리와 결합된 인프라 지원이 효과적</li> <li>• 주민의 상황, 역량과 맞지 않는 방식의 일자리사업은 실패</li> </ul>

## 마. 마을일자리 환경 조성

### 26. 행정 지원방향

-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 공공기관의 제도에 어필할 경쟁력 갖춰야
- 일과 활동의 관계 내용을 정립하는 공론장 필요
- 지역마다 센터와 조례 뒷받침 필요

### 27. 거시 환경

- 기본소득
- 참여소득
- 지역내 자급자족 구조(지역화폐, 로컬푸드)
- 모두가 잠재적 마을활동가

서울 마을형 일자리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울 마을의 시민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 분석

# 마을일자리 개념과 특징

● 마을일자리: 지역사회에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구조 및 문화를 형성하는 내용의 과업을 고용, 사업체 운영, 프리랜서 계약 등 여러 형태로 보수를 받고 행하는 지위.

## 마을일자리의 내용적 특성

- 공공성
- 지역성: 일상성, 실현성
- 주체성: 주민으로서 당사자성
- 관계성: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동질성을 가진 결속적 사회자본과 더불어 교량적 사회자본을 쌓는 일(공사를 넘나들며 관계를 맺고 확장)
- 주도성: 직무 기획과 운영의 자기주도성

## 마을일자리의 형태적 특성

- 비영리성
- 비경쟁적
- 진입의 보편적, 비 배타성
- 수평적 관계성(노-사 관계, 갑-을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일터 관계)
- 비물질적 보상 중요
- 공동체의 인정과 합의가 중요

# 활동과 일자리 관계

활동과 일은 순환하며, 상호작용 및 순환하며 생태계를 풍성하고 깊게 만든다

활동

- 필요에 의해
- 즐겁게
- 내용과 강도에 자기결정권 높음

일자리

- 미션을 성취해야 함
- 체계적 방법을 요함
- 적극적이고 능동적 일 계획
- 책임과 무게 요함
- 성과 요함
- 재미 없어도 해야 할 일
- 마을에 필요한 일
-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일

## 마을일자리의 역량과 전문성

- 역량을 요한다는 점에서 활동, 공공근로와 차이
- 관심과 의욕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진입 가능
- 지식 습득보다는 경험으로 습득
- 마을공동체성을 요하는 여러 분야(돌봄, 복지, 도시재생 등)에도 발휘

# 마을일자리 공적 재정지원 필요 이유

## 마을일자리 공적 기능

- 일상적인
- 공공적인
- 주체적인
- 문제해결
- 자본의 빈틈
- 돌보는
- 마을에 필요한
- 비어 있는

## 지속가능성 한계

### 개인

- 생계유지 안되면
- 지속 어려움
- 마을을 떠나게 됨
- 질과 양적 발전 한계

### 마을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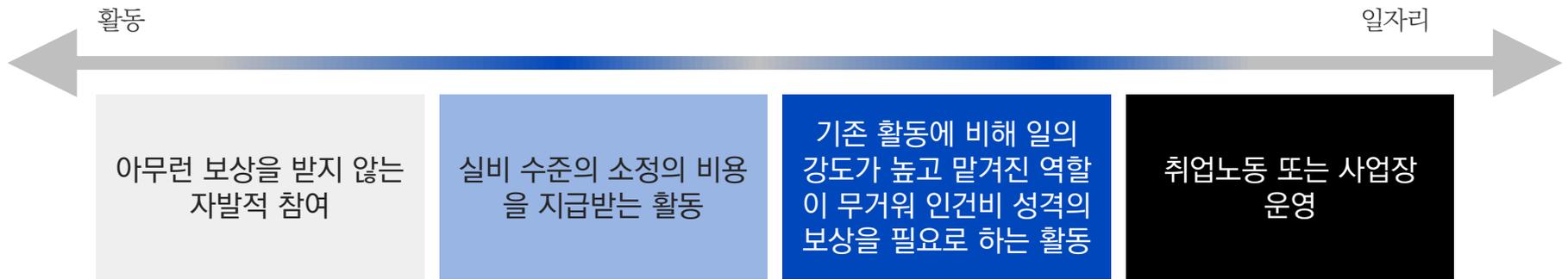
- 수익이 안 나는
- 인건비 자립이 어려운
- 자본이 못하거나 안 하는

# 전환사회에서 마을일자리의 가치

기후위기 시대 로컬 중심의 전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  
사회 전환을 위한 인적 자원에 투자

- 초기에는 지역이나 사회에서 여러 단위가 모여서 공감대와 공동의 비전을 만드는 것 필요
- 이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분야(돌봄, 보육, 에너지, 먹거리, 모빌리티, 도시재생 등) 몇 가지에 집중하여 성과와 경험을 만드는 전략 추진
-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공적·자체 자원을 활용해 여러 가지 실험과 성과를 내고, 이런 성과들이 촉진제가 되어 협력하고 발전하는 구조를
- 전환사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금융, 부동산 등)를 지역사회에서 합의에 의해 만들어 냄

# 일자리의 스펙트럼



마을일자리는 공적인 기능을 하지만, 개인이 보상 없이 노동력을 투여하기에는 지속성의 한계가 있음.

협동조합 등 마을사업장 경우에도 비영리적 성격이 강함.

자발적인 무보수의 활동으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이 집중, 고도화되기 어려움.

# 마을일자리에 공적재원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

필요 상황	지원 방식(예)	
1.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촉진	활동촉진 수당	
2. 생계유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마을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경력을 쌓아갈 작은 일감	일거리 지원사업	
3. 행정과 시장이 하지 못하지만 마을에 필요한 일을 새롭게 발굴하는 상황들	일자리 사업	일자리 발굴형
4. 마을 사업장 비영리성으로 인력 운영을 위한 수익이 충분치 않은 상황들		사업장 지원형
5. 마을활동이 돌아가기 위해서 기본적,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		필수인건비 지원형(매칭)
6. 일상적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 의제발굴, 연대활동 등을 위해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인적자원 형성 (ex. 협의체, 네트워크)		
7. 행정이 마을공동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마을공동체활동가의 역량을 필요로 하여 만드는 일자리(ex. 정책지원가)		정책 지원형
8. 일자리를 통해 마을공동체나 활동을 경험하도록 소개 (ex. 지역혁신청년일자리)		신규 인력 양성형
9. 자본주의 취업 노동에서 취업 취약계층이지만 역량이 있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요하는 사람들		자활형

# 마을일자리와 기존 일자리사업의 미스매치

## 직접일자리사업 목표는

- (1)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최대한 늘리고,
- (2) 반복참여자를 최소화하며,
- (3)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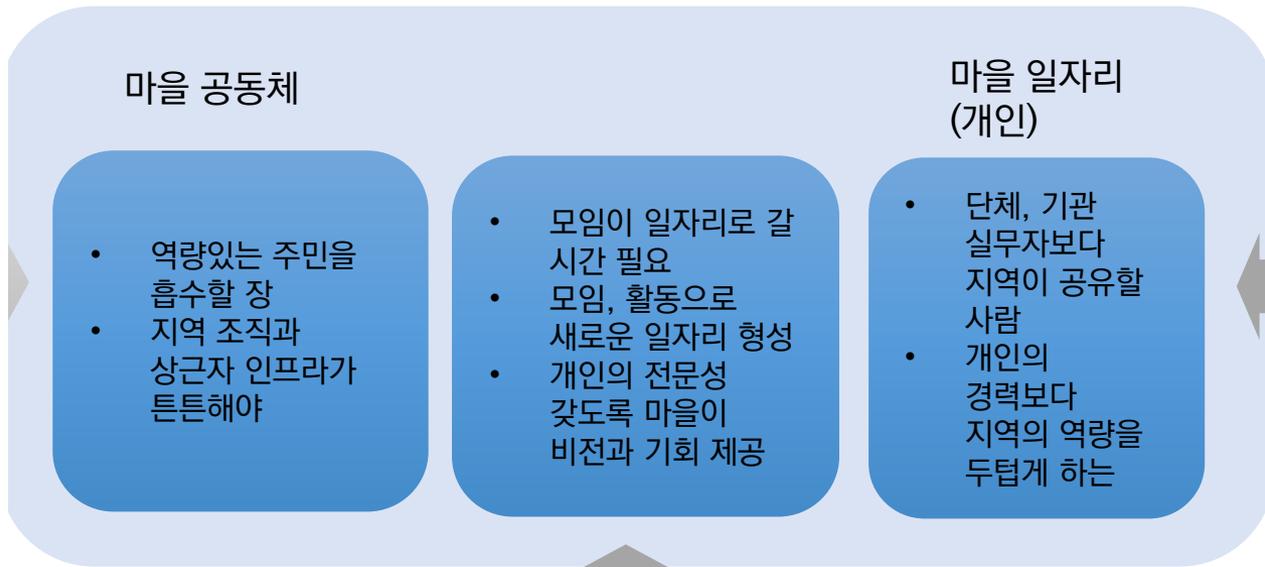
## 마을일자리사업은

- (1) 취약계층 고용과는 달리 고유의 목적이 있고, 마을에서 일할 사람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라는 점,
- (2)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게 되므로 한시적인 일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3) 마을공동체 일자리는 자체 임금소득을 내기 어려운 비영리적 일자리. 마을공동체적 비영리 일이므로 임금소득을 내는 민간 일자리로 이행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취업이 성과지표로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4) 마을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노동 시간과 장소가 고정된 일자리보다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일자리환경이 부합한다는 점

# 마을과 일자리의 관계를 고려한 일자리사업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 지역 주체적으로 사용할 예산
- 지역 단체와 네트워크에 투자
- 활동가의 성장 지원



일자리사업을 위한  
공적 자원 지원

- 일자리 사업계획에 지역 결정권
- 행정 회계 틀에 구속되지 않는 일자리 예산

사회 기반

- 일자리 필요에 공동체 합의
- 사회적 인정
-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
- 자생력을 보존하는 지원
- 일자리와 결합된 인프라 지원

# 마을 일자리사업의 방향

## #주민주도 마을일자리

- 일자리의 기획과 운용에서 주민이 주도
- 일자리 회계 운영의 자율성, 유연성 확보
- 일자리를 기획하는 사람의 일자리 필요 : # 마을일 기획자 # 마을일센터

참고:

주민참여형 동네일자리 모델 개발 사업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0)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연합 (CNLRQ)

## #참여자 직무 주체성

-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고 쌓을 수 있는 일자리로 기능
- 공공근로의 단순 일자리와 차별화
-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과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 부여
- 수요처와 참여자 간 동등한 위상에서 선택을 위한 상호 정보를 충분히 제공

# 마을 일자리사업의 방향

## ● 기타

### 공론화 필요

마을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인정 형성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어 좋은 사례를 만들고 마을일자리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성과 지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인 일자리사업 개수가 아닌 다른 평가지표 필요 ex) 새롭게 발굴된 일자리 모델, 만족도

고용승계 직접 못해도 지역 내에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인력 풀 양성

### 참여 사업장

기존 일자리사업에서 '좋은 사업장'의 기준과 다름(근무 시간, 직무의 구체성 등)

지역 공동의 일꾼, 인력풀을 양성한다는 개념

### 참여자 관리

참여자의 업무관리: 사업장, 지역사회, 혹은 멘토

멘토링: 참여자가 직무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티에게도 보상이 필요

서울 마을형 일자리 연구 포럼

#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미래

## 마을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가치

---

2021년 10월29일

정건화 (한신대 교수, 경제학  
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자문관)

# 1. 기후위기-팬데믹 시대, 전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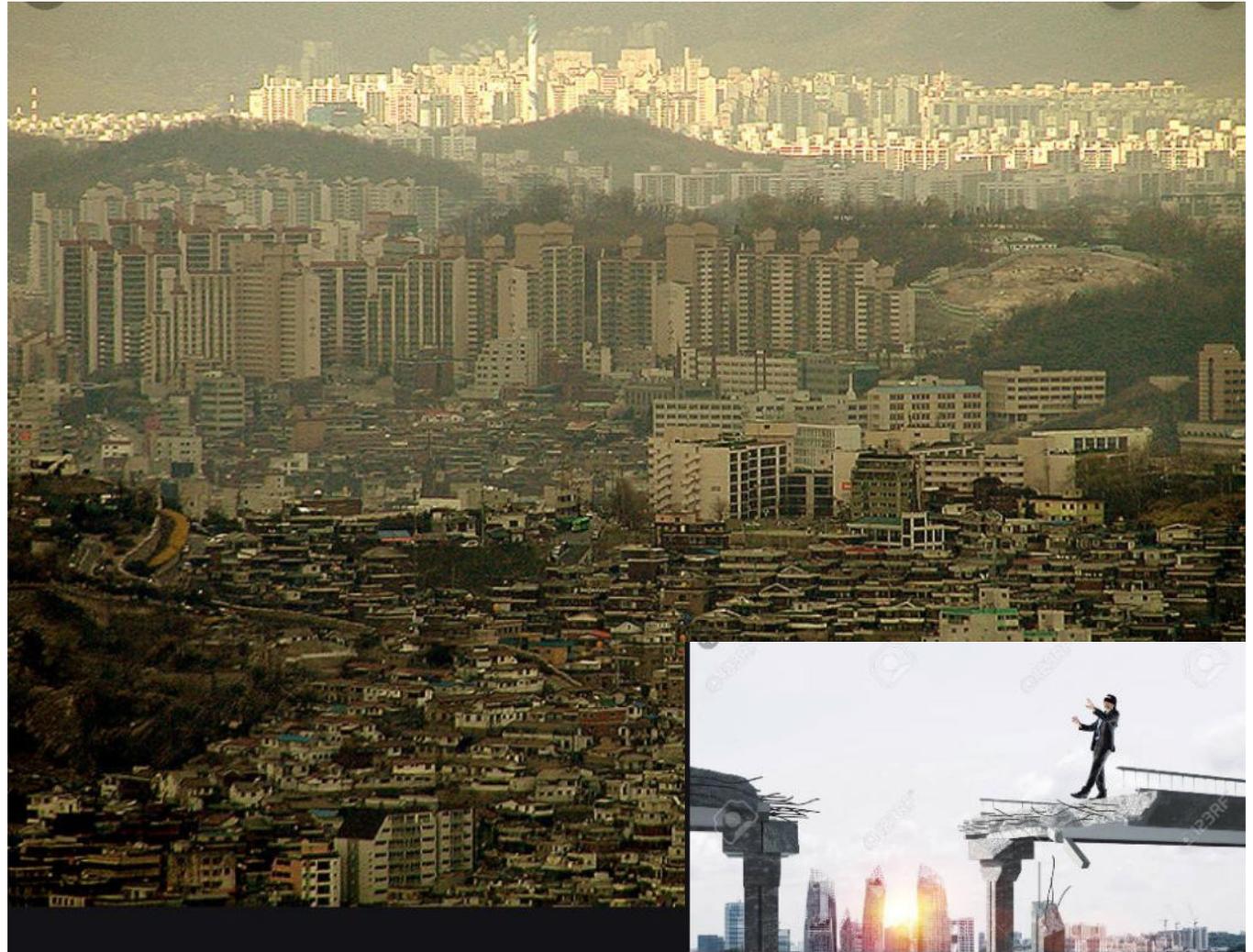
## 2. 패러다임 전환

### 3. 경제의 전환과 지역순환경제

### 4. 지역,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율, 한국

- ❖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 인구 비율이 81.5%**로 세계 평균(55%)에 비해 월등히 높고 그 비율은 더 늘어나 2050년이면 **86.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UN, DESA, 2018).



# 기후위기의 촉진자이자 취약자, 도시

한국인은 22개 도시 권역에 몰려산다...대도시화, 유럽보다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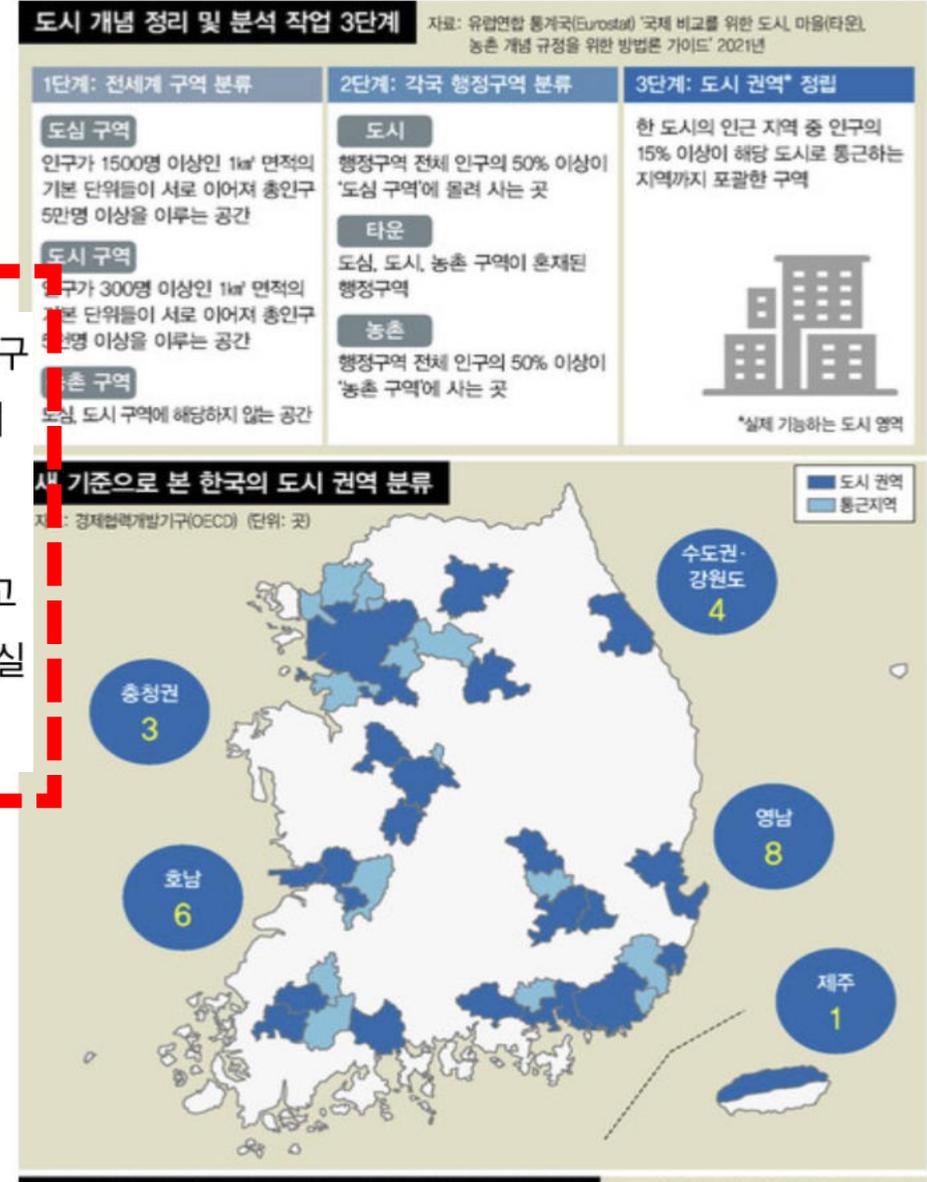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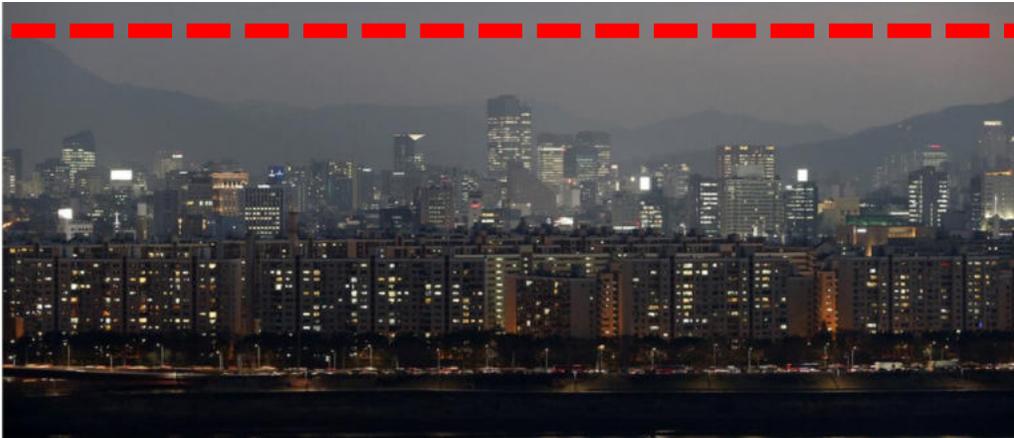
(한겨레, 2021,5.4) 511 24



신기섭 기자

세계 나라의 수도를 보면, 런던 권역(인구 1195만4천명)의 도시 거주자 비율은 82%, 로마 권역(인구 413만1천명)은 64%, 마드리드 권역(인구 661만4천명)은 80%로 분석됐다. 한국은 유럽보다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 추세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대 도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이탈리아 밀라노나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등에서는 통근·쇼핑 등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 시간을 15~20분 이내로 줄이는 분산형 도시 개편 실험이 전개됐다. 한국도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 완화 대책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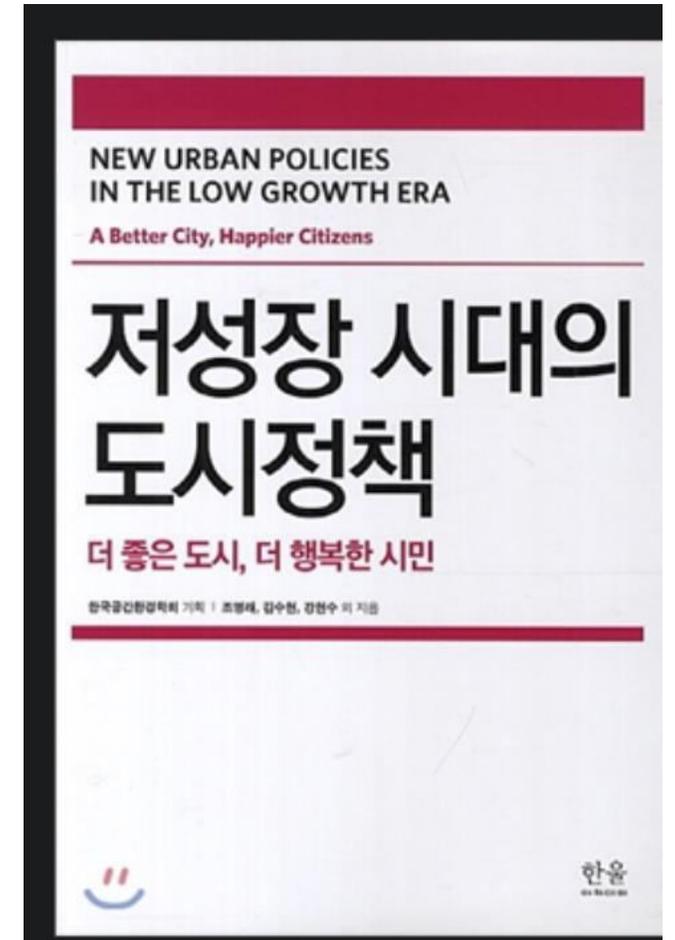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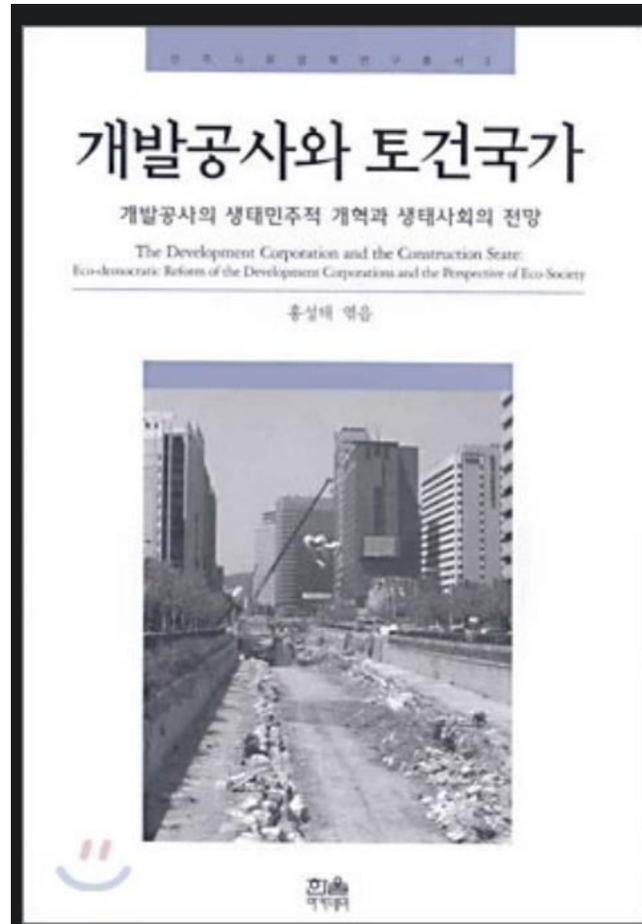


# 개발주의 토건국가, 한국

- **건설업의 비중**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부동산정책은 복지정책이나 주택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추진

- 도시, 주택건설은 하향적, 독단적, 특권적 방식으로 개발. **초헌법적 특권하 공급자, 소비자 모두 막대한 개발이익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택지조성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면화**(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대규모 택지가 개발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해당 도시의 공간구조는 물론 서울-부산 축을 따라 포도송이처럼 개발지가 집중.



# 토지정점(Peak Soil)과 도시재생

- ❖ 우리사회 토지이용은 지속가능성 관점이 결여된 채 재산증식수단, 토건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최대화라는 관점이 지배. 토지의 대체불가능성, 생태적 기능, 경관적 가치, 식량안보적 중요성 경시
- ❖ 기후변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토지침식, 사막화, 염분증가 등의 원인으로 토지 또한 피크오일(Peak Soil)처럼 토지정점(Peak Soil)이 현실화. 실은 이미 지남(too late!)
- ❖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사회 농지감소는 2000년대 이후 수많은 도시/택지건설 과정을 통해 더욱 심화
-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내생적,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기존 도시의 재생과 재활성화에 정책으로의 중심이동 필요

## 도시의 지속가능성

Life-Line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 유지의 바탕으로 도시안보, '지속가능도시'의 핵심조건 (정선철, 정건화, 2014). 佐々木一郎 (2002a), 「21世紀の危機管理と沿岸大都市の発展方向 序説」



## 라이프 라인과 인간안보 Life-line & Human Security

- 라이프라인: '물·식량·자원·에너지·자연환경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의 지속적 조달을 위한 물적 기반시설과 관련 제도 및 정책' (사사키 이치로(佐々木一郎))로서 인간안보의 기본조건
- '도시의 재구축'이라는 근본적인 수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라이프라인(Life line) 확보. 라이프라인 확보는 바로 도시 혹은 지역에서의 회복력(resilience)과 자급력(self sufficiency)를 갖추는 것



- ❖ “도시의 생태적 전환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현재 부딪친 생태위기에 대한 필수적 응답의 결과물이다. 생태위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은 도시의 회복탄력성/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탄력성/ 복원력이란 “근본적인 구조, 기능, 내부피드백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견디는 시스템 능력이다” (William E. Rees, 2010).
- ❖ “**공동체 건설, 사회적 경제, 에너지 분산, 재생에너지 사용, 공동체 지원농업 등 모든 프로그램은 도시의 회복탄력성/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가 음식, 주거, 교육, 교통, 보살핌을 스스로 해결할수록 그 공동체는 스스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며 잠복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Michael Shuman, 2010)

# 1. 기후위기-팬데믹 시대, 전환의 필요성

## 2. 패러다임 전환

3. 경제의 전환과 지역순환경제

4. 지역,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이 필요한 문제들

- (1)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지속가능성, 생태용량**, 기후변화의 비용
- (2)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 (3) **시장의 한계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위기상황에 작동않는 시장, 국가의 **공공 정책**의 중요성(방역, 공공의료..)
- (4)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공공성 및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생태적 시민성, **로컬의 회복력, 복원력** 강화의 필요(특히 식량, 에너지, 안전과 보건의료, 등),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
- (5) 도시와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삼림과 숲의 훼손과 **도시화, 도시의 취약성**,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 (6)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4차 산업혁명, **고령화, 풀타임 고용의 종언, 비정규/플랫폼 노동의 확산**,...
- (7) 전환의 관점에 바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특히 경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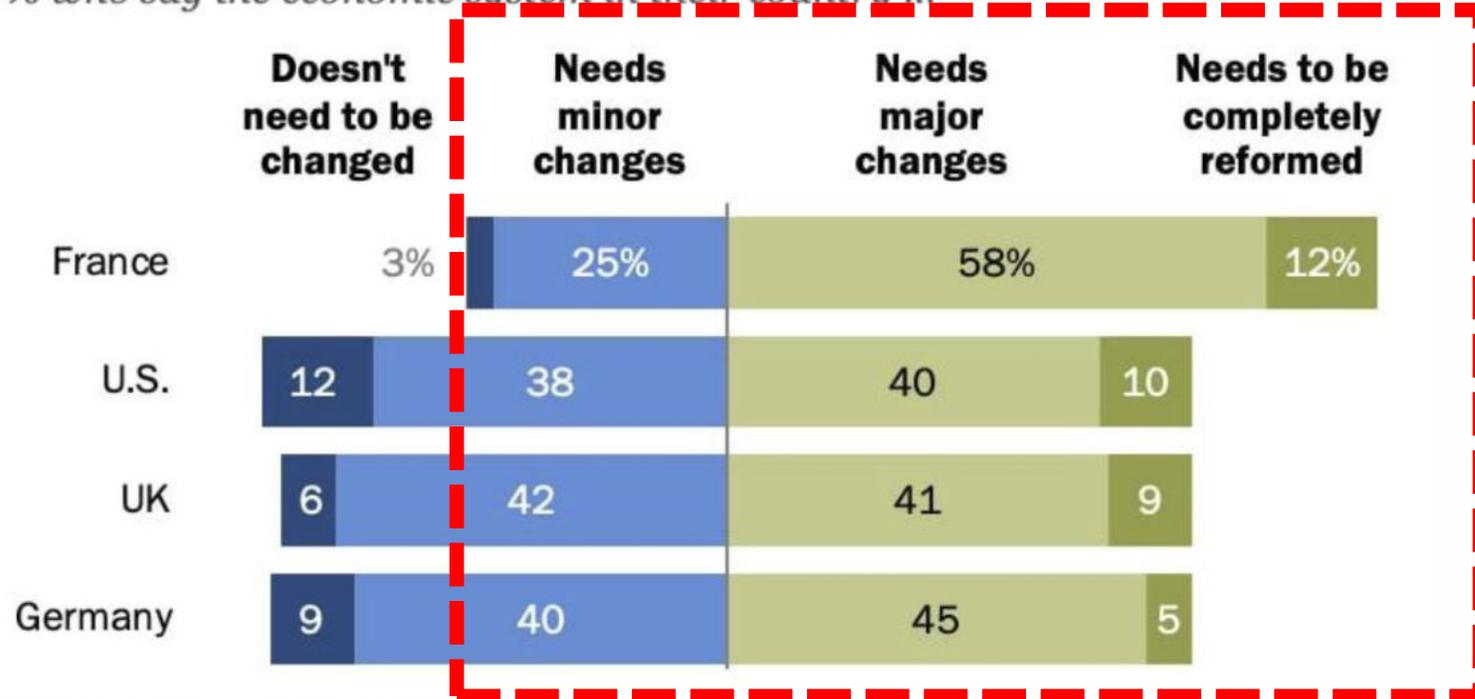
# 현 경제시스템의 작동 오류는 분명해졌다!

- ❖ 이미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성장 일변도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는 많이 지적된 바 있음.
- ❖ 여기에 더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이 경제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글로벌 금융과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엮인 생산시스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위기에 시장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윤동기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는 무기력하게 멈춰섰음.
- ❖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글로벌 이윤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고, 식량과 먹거리, 에너지, 보건과 의료 등이 그런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줌.

# 경제체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 A majority in France and half in Germany, UK and U.S. think economic system needs a major overhaul

% who say the economic system in their country ...



Note: Those who did not answer not shown.

Source: Fall 2020 Global Attitudes Survey. Q13.

"Many in Western Europe and U.S. Want Economic Changes as Pandemic Continues"

1. 기후위기-팬데믹 시대, 전환의 필요성

2. 패러다임 전환

**3. 경제의 전환과 지역순환경제**

4. 지역,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 ❖ 뉴욕타임즈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관련 저작으로 꼽은 <This Changes Everything>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와 지구와의 전쟁'이고 자본주의가 언제나 아주 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
- ❖ "이 전쟁은 벌써부터 진행되어 왔고, 매년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워 기후 행동을 미루고 이미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깨뜨리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위험성 높은 석유와 가스 채취 산업에 아름다운 바다를 내주는 것만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
- ❖ 베이징에서 숨이 차 쉼쉼거리는 어린 자녀에게 귀여운 만화 주인공이 그려진 방진 마스크를 씌워 학교에 보내는 수고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어차피 우리 앞에는 채취냐 내뿜이냐, 오염이냐 가난이냐 하는 암울한 대안만 남아 있다고 자포자기할 때마다, 자본주의는 이긴다" (나오미 클라인, 2014. 이순희 옮김, 2016: 45-46)



# Beyond GDP: 성장주의를 넘어서

- ❖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며 삶의 질, 행복, 지속가능성이 점차 정책 담당자나 학계의 관심을 끄.
-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GDP를 대체할 연구를 Amartya Sen, Joseph Stiglitz, and Jean-Paul Fitouss에게 의뢰, 스티글리츠 리포트(2009) 발간-> **Beyond GDP**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
- ❖ “당신이 측정하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에 영향을 준다. 올바른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일을 할 수 없다.” “경제/생산을 측정하는 데서 Well-being 을 측정하는 데로 강조점이 옮기기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 THE STIGLITZ REPORT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IN THE WAKE OF THE GLOBAL CRISIS

Joseph E. Stiglitz

and Members of a UN Commission  
of Financial Experts

WITH AN INTRODUCTION BY MIGUEL D'ESCOTO BROCI  
UN GENERAL ASSEMBLY PRESIDENT

## GDP는 틀렸다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박형준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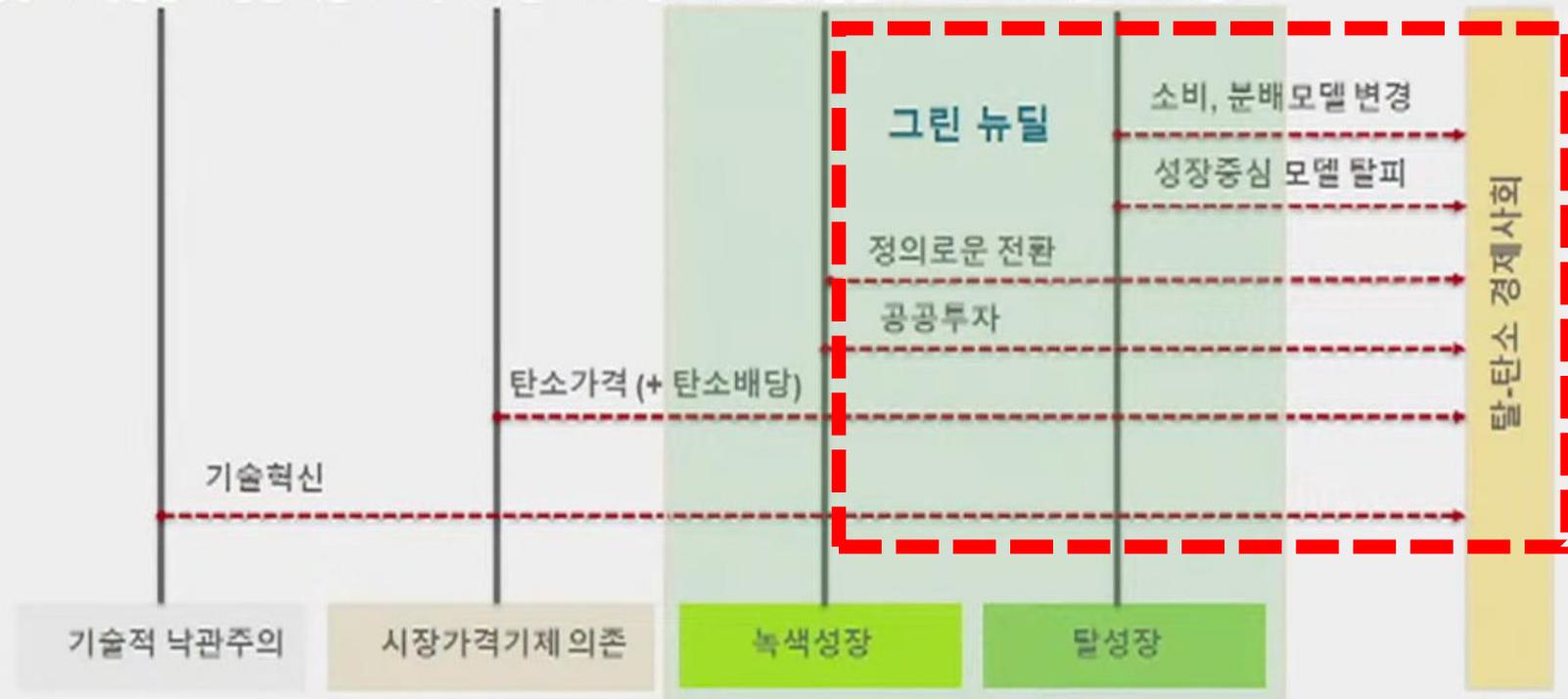
Mismeasuring  
Our Lives



# 그린 뉴딜과 생태적 전환

## • 탈 탄소경제로 가는 다양한 경로와 주장

-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탈-탄소사회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음.
- 기술 낙관주의는 기술혁신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녹색성장'과 '탈성장' 주장은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린뉴딜은 여기에 포지셔닝 되고 있음.



# 탄소경제로부터의 이행의 불가피성

미국의 그린뉴딜, EU의 그린딜 모두 고율의 탄소세, 탄소국경세 예고

“인류가 탄소제로배출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산업에서 무려 미화 100조 달러의 자산이 좌초될 것으로 예측. 화석연료 발전소, 화석연료 다배출 산업이 좌초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기반하는 국가 또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미 **미국의 그린뉴딜, EU의 그린딜 모두 고율의 탄소세, 탄소국경세를 예고**하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 화석연료기반 산업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위기뿐만 아니라 **외국, 즉 수출 대상국의 이런 거대한 전환이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값싼 에너지로 수출상품을 만드는 산업에서는 배출제로를 위한 고율의 탄소세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최악의 경우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환의 과정에서 좌초될 산업들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다.** 화석연료 문명이 파괴될 경우 화석연료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은 수출할 곳이 없게 된다.” (김재삼, 기후환경행동연구소)

#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상위 기업

※ 2019년 기준, 공공발전소는 제외, 단위: CO2톤, 자료: CEO스코어

8148만



포스코  
철강

2224만



현대제철  
철강

1113만



삼성전자  
IT 전기전자

1079만



쌍용양회공업  
건설 및 건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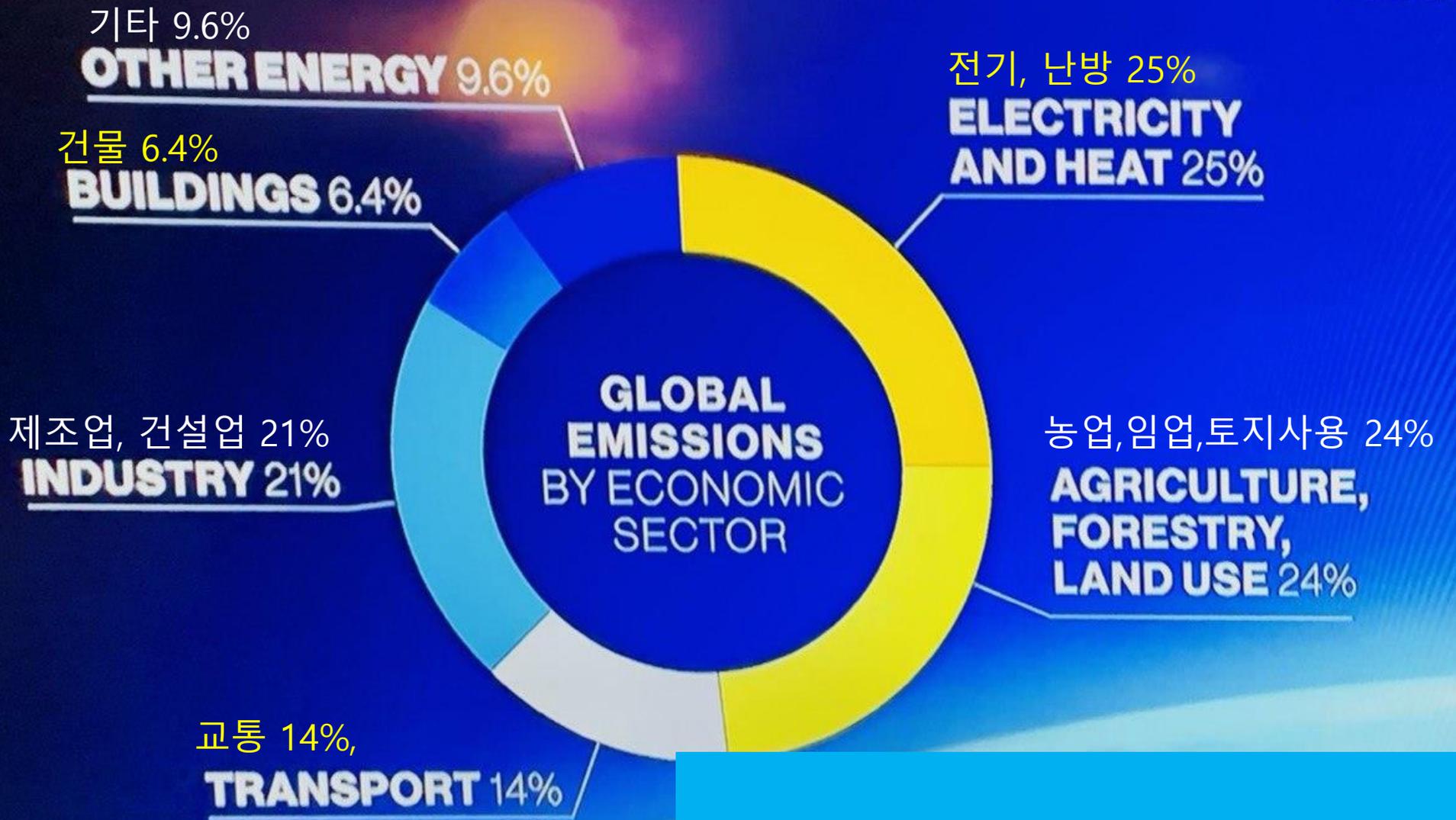
960만



S-OIL  
석유화학

# 행정구역별 고전환 비용 업종 종사자수

지역	석탄발전 업종 종사자 (전기 및 가스 공급 업종)	탄소집약적 업종 종사자수 (전기 및 가스공급 업종 제외)		고전환비용 업종 종사자수 (전기 및 가스공급 업종 포함)	
		시나리오②	시나리오④	시나리오②	시나리오④
서울	0	232,696	32,404	232,696	32,404
부산	2	98,307	17,799	98,309	17,801
대구	3	54,277	6,763	54,279	6,765
인천	2,255	93,379	18,706	95,635	20,962
광주	0	31,231	3,660	31,231	3,660
대전	0	33,193	3,138	33,193	3,138
울산	0	50,253	8,967	50,253	8,967
세종	0	6,144	1,057	6,144	1,057
경기	120	354,185	69,954	354,303	70,072
강원	2,508	36,084	8,007	38,591	10,514
충북	0	60,831	16,664	60,831	16,664
충남	5,527	90,541	33,408	96,069	38,936
전북	1,280	54,442	12,070	55,722	13,350
전남	968	73,225	19,383	74,196	20,354
경북	94	105,038	44,553	105,130	44,645
경남	4,104	93,959	30,543	98,065	34,649
제주	0	16,868	1,782	16,868	1,782
35 총계	24,413	1,484,653	328,858	1,501,514	345,719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구성

(출처: IPCC)

#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발족 (2021)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5월 출범 - ...  
economy21.co.kr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29일 ...  
m.khan.co.kr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newscham.net



단독]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 오...  
hani.co.kr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  
m.dailian.co.kr



관망경]탄소중립위원회 - 전자신문  
m.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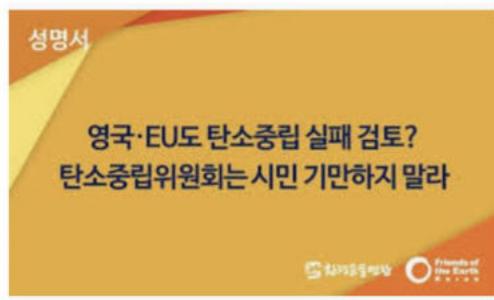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3안별 주요 내용

분야	1안	2안	3안
전환	석탄발전소 7기 유지	석탄발전 중단, LNG발전 확대	석탄-LNG 중단, 신재생에너지 70.8%
산업	철강업 고로 전체 전기화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 전기열로 도입		
수송	전기·수소차 70%, 잔여차량 대체연료로 전환		전기·수소차 97%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1·2안에 더해 열원으로 수열에너지와 지역난방 활용
농·축·수산	어선 및 농기계 잔여화·수소화, 매립-이산화탄소 발생 억제하도록 영농법 개선,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폐기물	폐기물 소각·매립 최소화, 플라스틱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매립지 매단 발생 최소화		

전력경제신문 모바일 사이트,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온실가스 순배출 ...  
m.epetimes.com



문 대통령, 탄소중립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 연합뉴스  
yna.co.kr



성명서] 영국·EU도 탄소중립 실패 검토?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5월 출범

시나리오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순배출량	감축률 (2019년 대비)	비고
1안 2,540 만톤	96.3%	기존의 세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 하면서 기술발전 및 탐·연료의 전환
2안 1,870 만톤	97.3%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
3안 0	100%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

자료/ 탄소중립위원회  
장예찬 기자 / 20210905 트위터 @yoonae\_graphics 페이스북 turey/LetN1

정부, 2050 탄소중립 3개 초안 발표 "석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결정...

## 2018-2019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 2030년 목표도 못 지키는 상황

[그림 1] 국가 전체 배출량 감축경로



- ✓ 2018~2019년 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15.2백만 톤CO<sub>2</sub>e. 1990년도 총배출량 292.2백만 톤CO<sub>2</sub>e 대비 144.8% 증가  
2030년 NDC 달성 목표 배출량 690.0백만 톤보다 높음
- ✓ 2018년 727.6백만 톤CO<sub>2</sub>e에서 2019년 702.8백만 톤CO<sub>2</sub>e으로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과 생산 감소에 따른 감축, 정책적인 노력이 아니라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자연감소분
- ✓ 부문별로 산업 외 전 부문 배출량이 목표 대비 5%이상 증가
- ✓ 목표 배출량 대비 국가 배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 에너지집약도 효과와 탄소집약도 효과 → 에너지원단위와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속제로 남아
- ✓ 약한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2021년은 2030년까지의 NDC 상황 조정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탄소 35% 감축' 달성 가능?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2018년

7억2,760만t  
(순배출량:6억8,630만t)



2050년 배출량

- 1안 2,540만t
- 2안 1,870만t
- 3안 0t



경제현장 오늘 송영길 "韓, 온실가스 8년 내 40% 감축해야"

크레퍼시픽 218,000 ▲ 2,500

아모레퍼시픽우 77,600 ▲ 700

SBS Biz

연도	2019	2020	2030
배출량(백만톤 CO <sub>2</sub> e)	702.8	-	-
목표 배출량(백만톤 CO <sub>2</sub> e)	90.9	-	574.3*

\*순배출량 기준이며 550백만 톤CO<sub>2</sub>e의 추가 감축 반영

# ‘포스트 정상과학’의 시대, 뉴노멀 경제학 (New Normal Economics)의 핵심개념

- ❖ 핵심개념(key concepts)은 분권(decentralization), 분산(dispersion), 연결(networking), 참여(participation)
- ❖ 폐기물이 자원이 되고 무한성장과 소비주의를 지양, 생태적 고려가 경제적 효율성이 되는 사고의 전환이자 혁신적 전환전략 필요  
(Waste is food/Wealth, Green is Gold, Small is Beautiful !)
- ❖ 공통의 전략은 지역사회회복력 강화(community resilience)를 통한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에 대응
  - 주민소유 재생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새로운 경제:  
 'Waste is Food (쓰레기가 식량이다)'  
 'Green is Gold (그린이 황금이다)'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49

1. Green is Gold

중국 : Eco.Civ. "Green is Gold"

- 4대 중국은 '생태문명'이란 가치를 2011년 공산당 18차 대회에서 '인민 중심'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제시하고 2013년에는 총 10장 56종의 '생태적 진보'를 핵심으로 하는 '생태 문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아직 체계적인 공인으로서 현대 공학계통국가라는 요망은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 지도부의 구상된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산업문명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생태문명을 지목한다는 의욕이 나타나고 있음
-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법률 관행에 만족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성을 일깨우고 마음의 단련으로 배양하는 종교, 문명주의적 가치관 등 근대문명의 잔재를 되찾는 일'의 진리를 통해만이 인류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상을 국가 정책과 입법, 계획, 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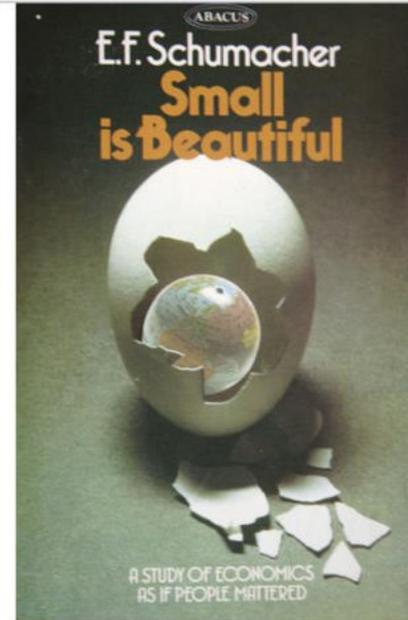
중국의 생태문명 전략을 소개하는 UN 보고서  
 Green is Gold: the strategy and actions of China's ecological civilization, (UNEP, 2016).

생태문명 전략 20년차의 목표

50

2.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 ❖ 경제는 사람들의 참된 수요에 바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제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데, 인간은 작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 거대주의는 자기파멸로 이끌 뿐이다. ...기술발전은 인간을 파괴하는 대신 인간에 봉사하도록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상상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 ❖ ...lead it back to the real needs of man, and that also means: to the actual size of man. Man is small, and, therefore, small is beautiful. To go for giantism is to go for self-destruction. ...to redirect technology so that it serves man instead of destroying him requires primarily an effort of the imagination and an abandonment of fear". (E. F. Schumacher, Technology with a Human Face, Small is Beautiful:132)



Transformative Learning for Sustainable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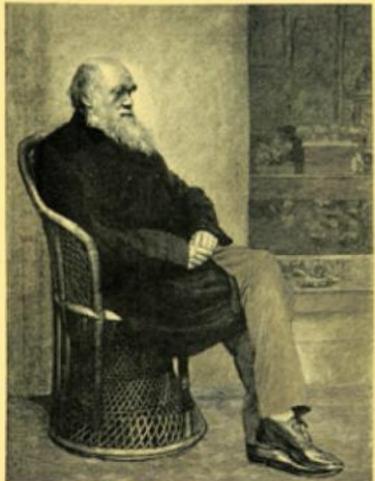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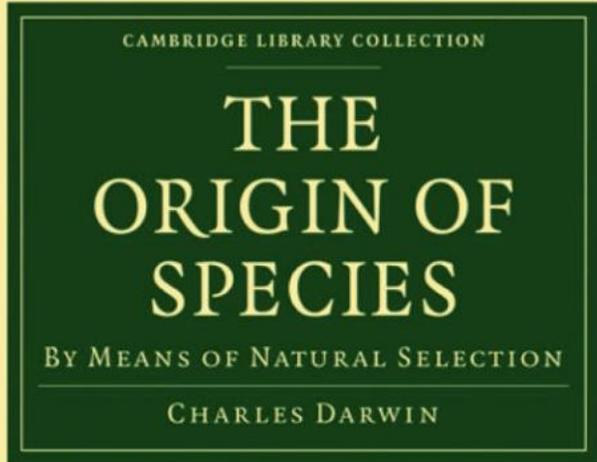
Schumacher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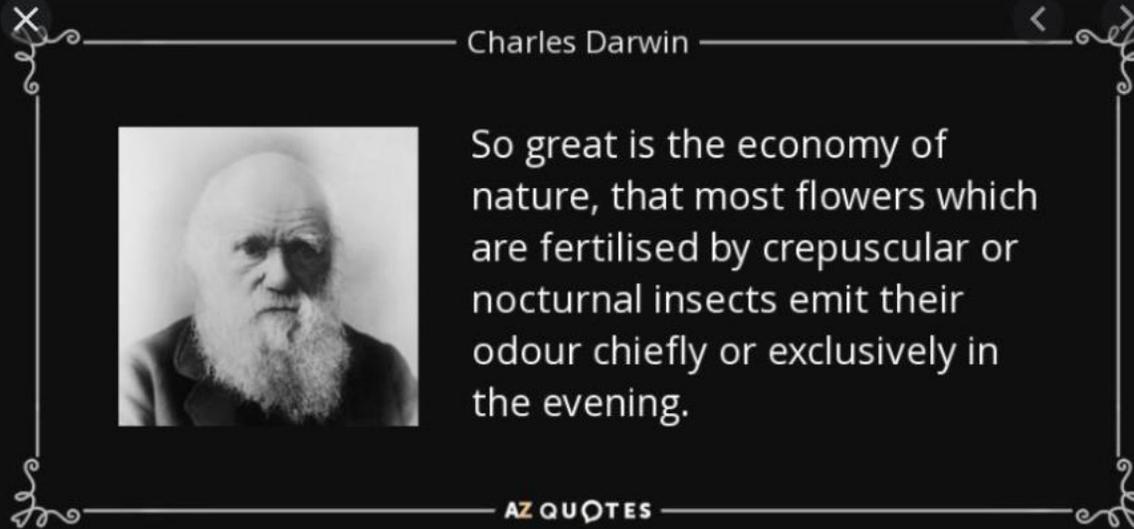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EF Schumacher

52

# Ecology = 'Economy of Nature' (Charles Darw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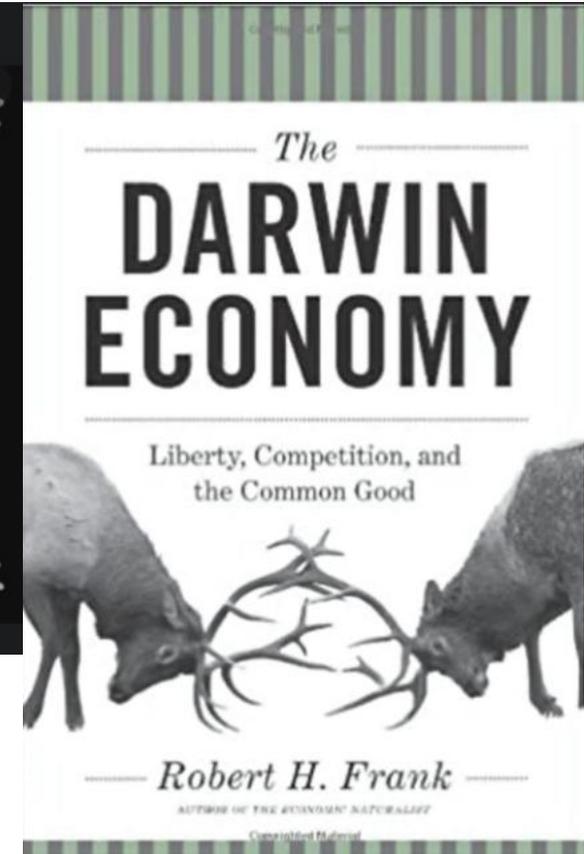


CAM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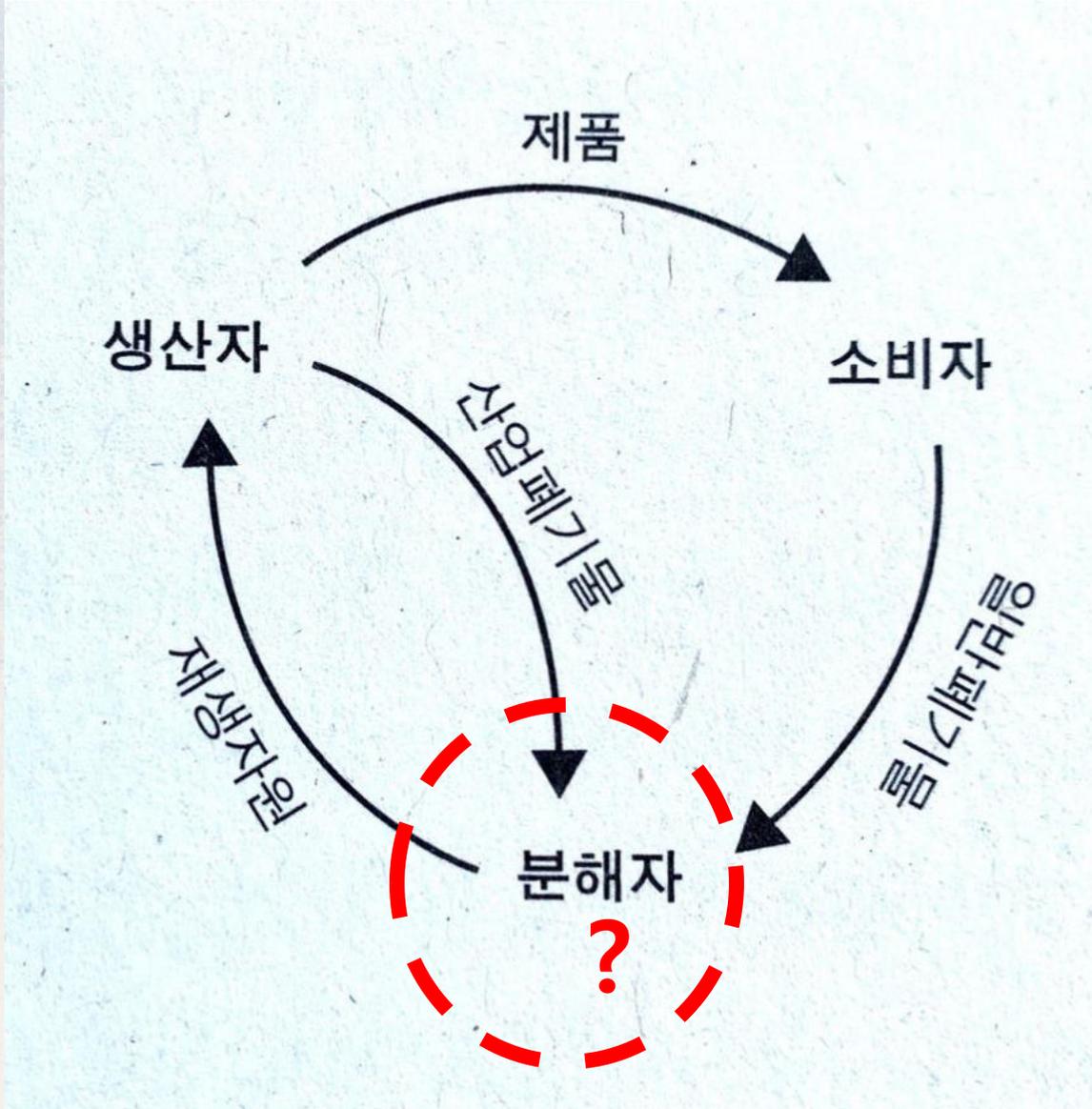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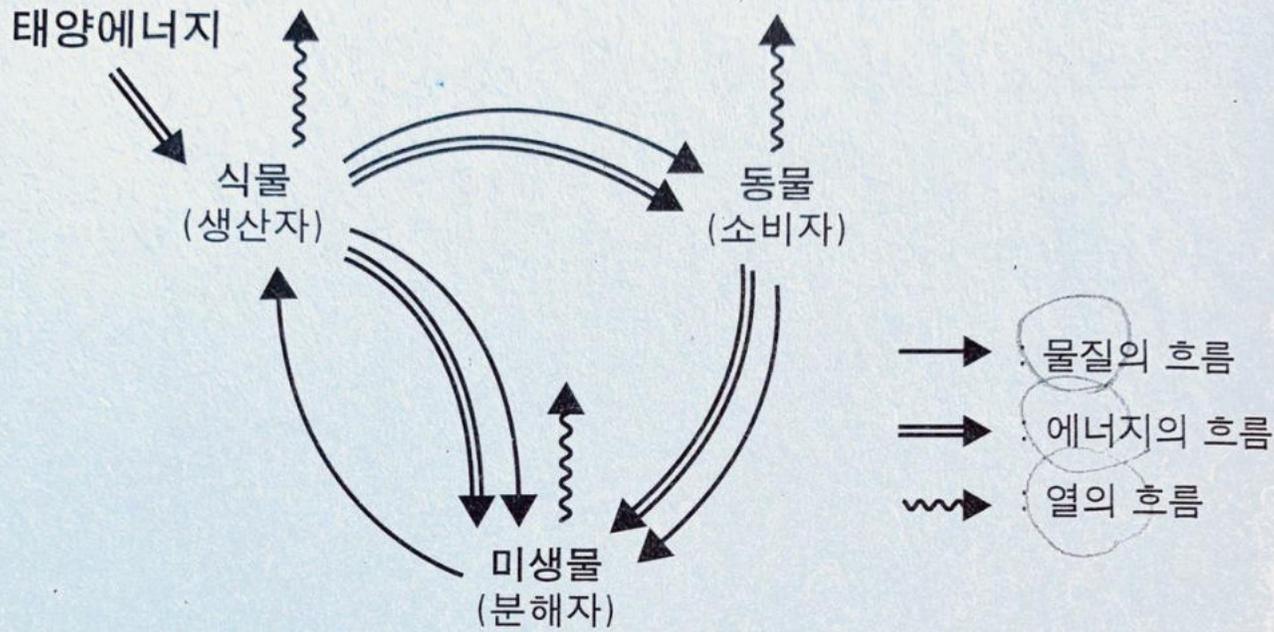
" So great is the economy of Nature, that most flowers which are fertilized by crepuscular or nocturnal insects

**자연의 경제는** 위대하다. 야행성 곤충에 의해 수정되는 대부분의 꽃은 어두 컴컴한 밤에 향기를 뿜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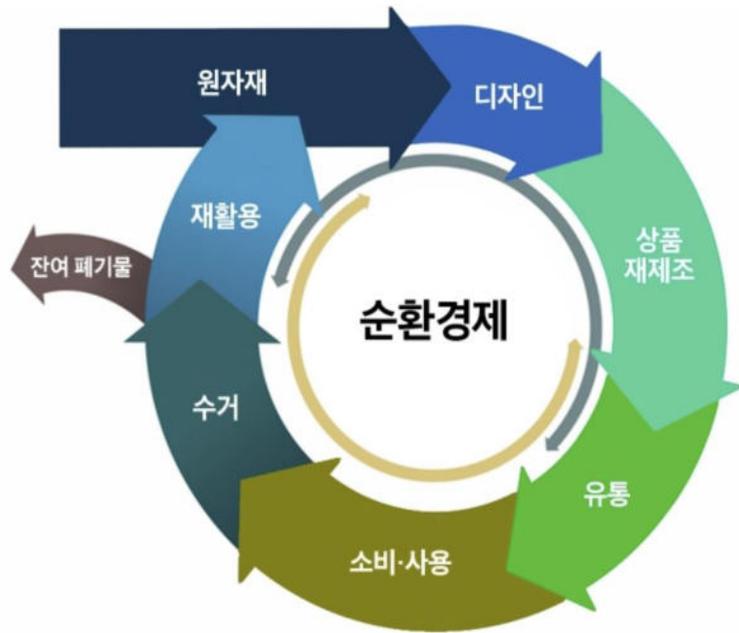
# 지구생물계(Biosphere), 자연의 경제(Ecology)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그림 1] 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



한, 식물 — 동물 — 미생물 간의 물질순환은 무한히 반복됩니다. 즉 생태계는 물질순환과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존재할

# 쓰레기가 식량이다, 폐기물이 자원이다 (Waste is Food/Waste is W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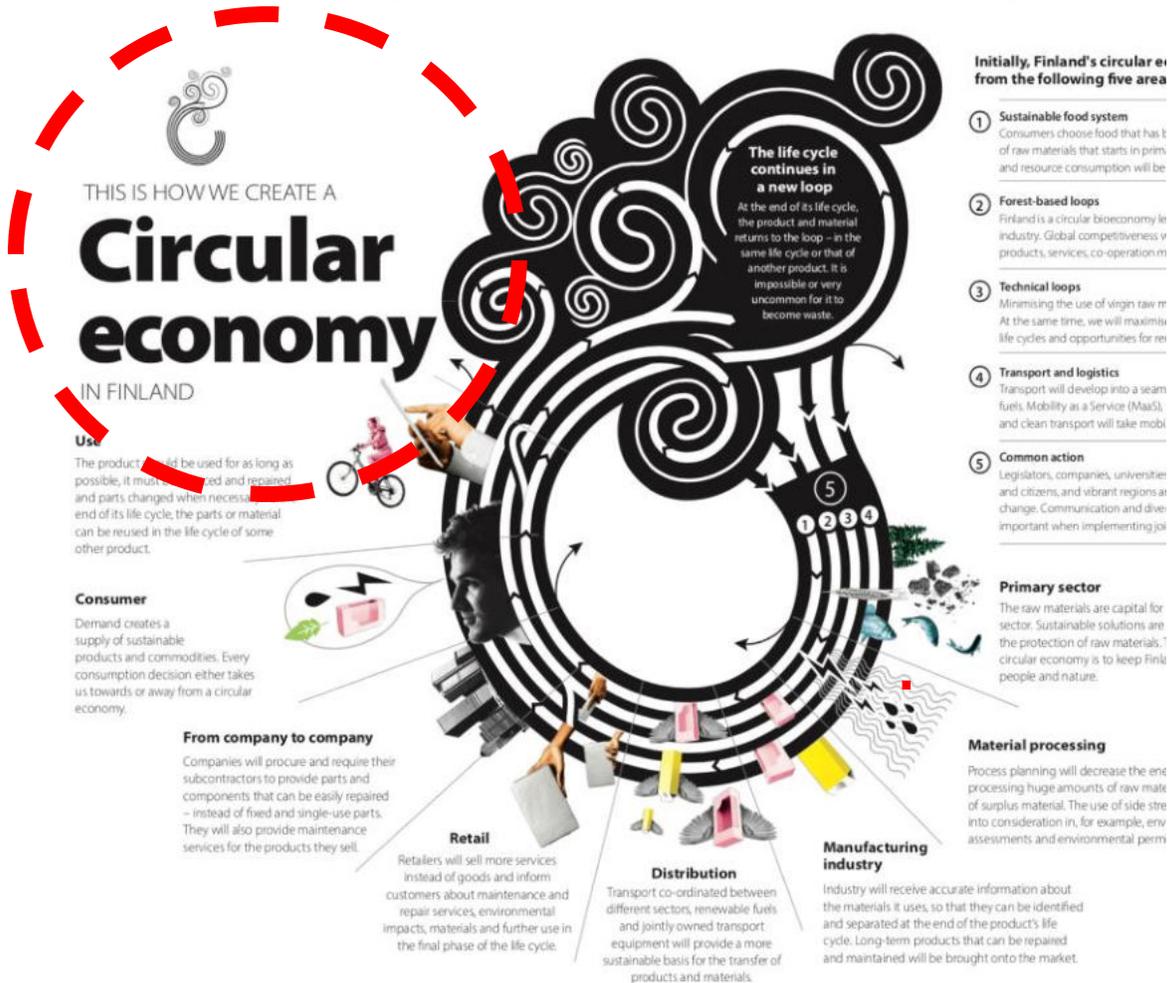
유럽연합(EU)은 지난 2014년 회원국들에 2030년도까지 도시 쓰레기의 70%, 포장재 폐기물의 80%를 재활용하라고 제안하는 순환경제 전략을 승인하는 등 세계적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삼성뉴스룸

- ❖ 지구적 규모로 순환이 일어나서 마치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선형경제 (linear Economy) 대신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를 생각할 시점
- ❖ 지구 생태계 모든 생물의 활동의 결과물은 생태계로 환원되어 풍요를 위한 토양이 되는 순환을 이루지만 오직 인간활동의 결과물만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일으켜 지구 생태계의 순환을 위협하고 회복력이 허용하는 생태용량의 임계치를 위협
- ❖ 생산과 분배, 소비가 순환을 이루려면 소비의 결과물인 폐기물이 생물학적/기술적으로 다시 생산으로 재투입되도록 생산시스템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함

# 핀란드의 순환경제로의 국민경제 전환전략

SITRA STUDIES 121  
Leading the cycle - Finnish road map to a circular economy 2016-202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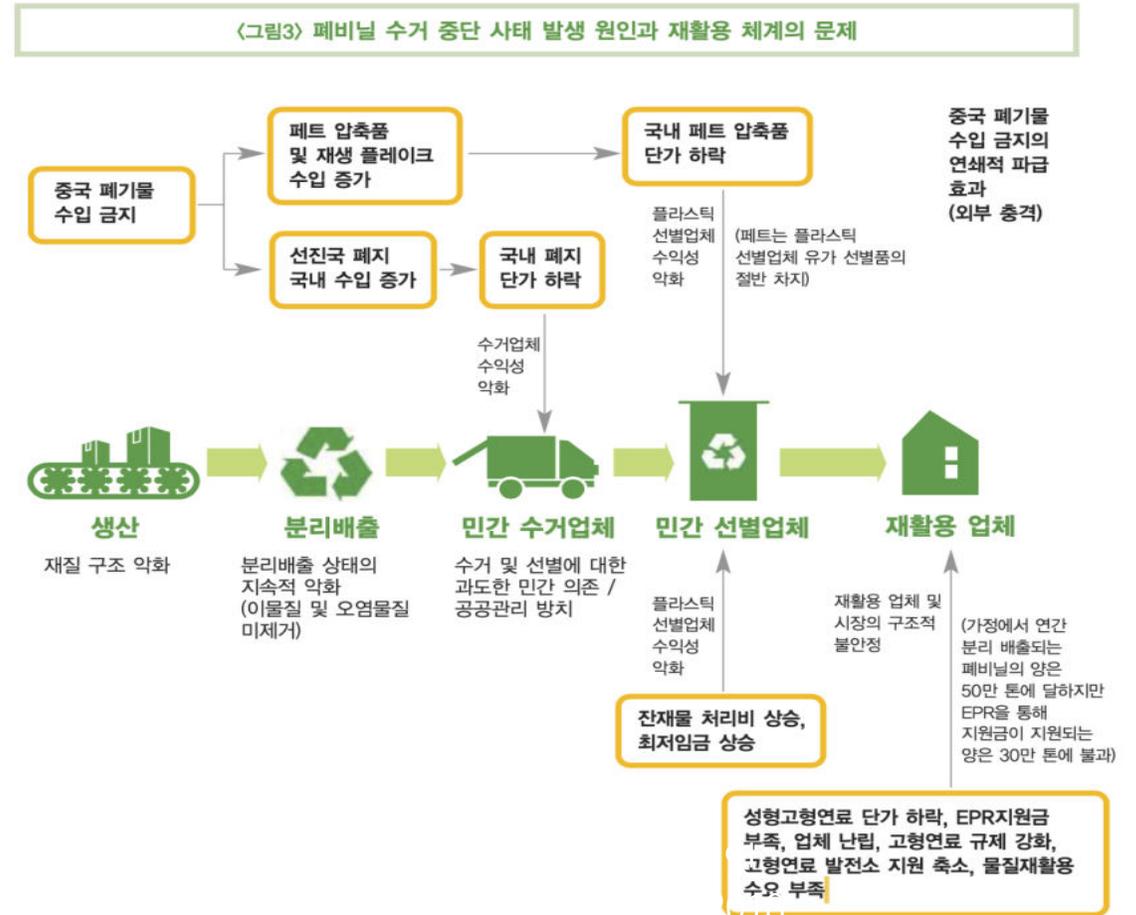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는 정부 주도하에 지역 차원에서 논의한 순환경제의 원리와 가치를 국민경제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담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SITRA, 2015). 즉 기후 위기와 재생에너지 혁명을 이끌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넘어 생태적 효율성을 달성할 목표

시장을 통한 조정의 조화와 균형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으므로 생산자, 소비자, 중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익명의 존재로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게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경제의 생산, 분배, 소비의 전체 순환과정에서 원료의 사용과 '생산물의 재사용'의 극대화와 '폐기물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국민경제

# 우리나라에서 순환경제의 이해와 도입 수준

❖ 우리나라에서는 순환경제 개념은 좁게 리사이클링 등 자원순환과 재활용의 맥락과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고 소개되었지만 **시장경제의 한계와 대비해서 순환경제는 그 의미와 적용과 성과 등에서 훨씬 크고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적용범위도 매우 다원적임 (제품, 기업, 산업, 지역과 도시, 국민경제, 국제경제..)

❖ <순환경제>는 시장경제의 이념, 담론을 대체할 이론적 기반과 철학적 가치(익명성, 분절성, 보이지않는손 대신 책임성, 상호성, 보이는손..), 현실적용가능성(디지털, 스마트 기술 기반)을 지니고 있고, **기업, 로컬, 대도시, 국민경제 (핀란드 가 대표적), 글로벌 경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 함의를** 지님.



# 파리 순환경제 플랜 2017-2020

## 광역 및 기초자치구를 위한 비전

### PARIS CIRCULAR ECONOMY PLAN 2017 - 2020

Vision for its territory + municipal policies

2016년 행동목표 분석 및 실현가능성 연구

2016: ACTIONS DIAGNOSTIC AND FEASIBILITY STUDIES

2017: FIRST ROADMAP  
15 practical actions

2017-2019년 분석 및 실현가능성 연구

2017 TO 2019: ACTIONS DIAGNOSTIC AND FEASIBILITY STUDIES

ASSESSMENT AND REPORT OF ACTIONS

2018-2019: SECOND ROADMAP  
10 to 15 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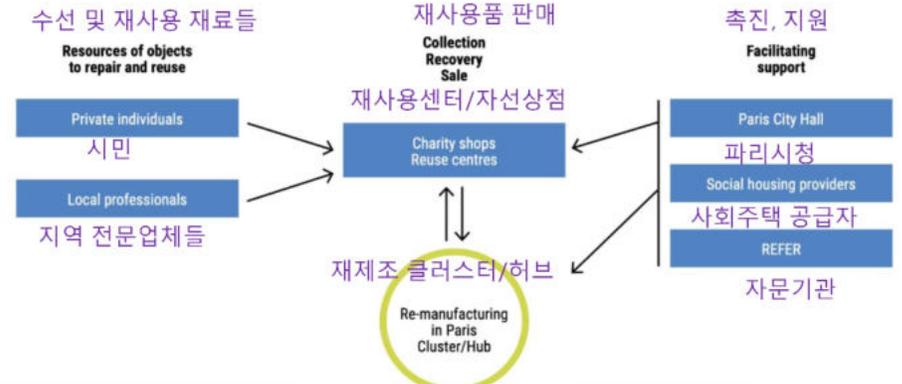
Methodological reminder: Actions of the Paris Circular Economy Plan – a multi-year programme until 2020

# ACTION 7 7. 재제조

## RE-MANUFACTURING IN PARIS: DEVELOP CHARITY SHOPS AND REUSE CENTRES IN PARIS

### 파리시 재사용센터/자선 상점

### MAP OF ACTORS



# ACTION 8 8. Incubator

## INCUBATOR: CREATE AN INNOVATION PLATFORM FOR THE CIRCULAR ECONOMY

### 순환경제를 위한 혁신 플랫폼 인큐베이팅

### MAP OF 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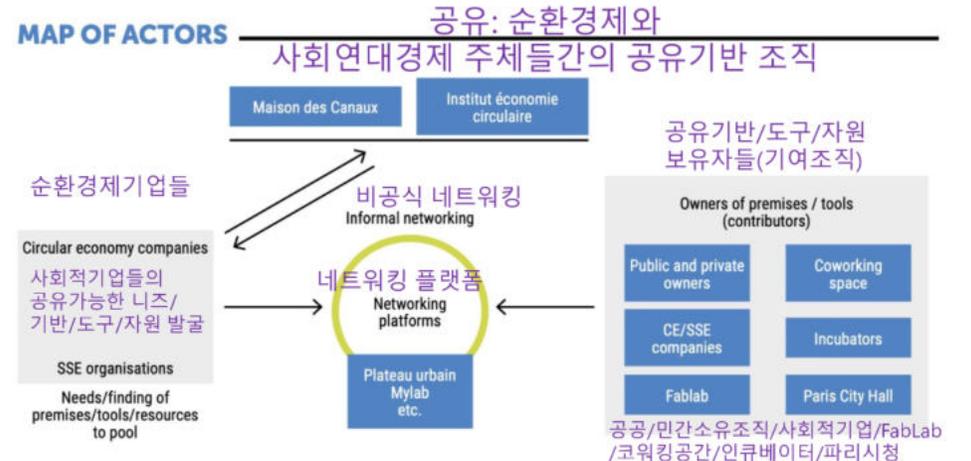


# ACTION 9 9. Sharing Economy

## SHARING: ORGANISE SHARING OF PREMISES FOR ACTORS IN THE CIRCULAR ECONOMY AND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공유: 순환경제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간의 공유기반 조직

### MAP OF ACTORS



# '15분 도시'와 지역 순환경제

- ❖ 순환경제는 지역 내 순환, 인간과 자연의 순환, 경제의 순환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지역순환경제는 로컬단위에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풀어나가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맞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생태적 경제발전전략
- ❖ 경제의 순환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순환경제가 강화되는 것이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
- ❖ **"작은 것이 아름답다"(슈마허): 로컬경제, 중간기술(적정기술),...의 공간범위**
  - **전통시장**- 포장재없는 제품들의 생산-소비 (망원동 알맹시장, 전환마을../토티네스)
  - 의류/패션산업: **친환경 윤리 패션** - >동북4구의 섬유, 봉제산업 인력 활용(모어댄, 오르그닷../ 프라이탁, 파타고니아..)
  - **공공급식**: 로컬 푸드, 먹거리 순환경제, 도농교류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게임앱, 스타숲- 숲가꾸기 (트리플래닛)
  - **태양광, 풍력 에너지** : 독일 세나우, 덴마크.. (햇빛발전협동조합, 블록체인 기법)
  - **15분 도시** (파리, 암스텔담,...) 부산('15분도시': 박형준), 서울 ('21분도시': 박영선)



**TABLE OF CONTENTS**

- Amsterdam becoming a thriving city 3
- The Doughnut: a 21<sup>st</sup>-century compass 4
- Creating a Thriving City Portrait 5
- Amsterdam's City Portrait 6
- Lens 1: Local Social** 6
  - What would it mean for the people of Amsterdam to thrive?
- Lens 2: Local Ecological** 8
  - What would it mean for Amsterdam to thrive within its natural habitat?
- Lens 3: Global Ecological** 10
  - What would it mean for Amsterdam to respect the health of the whole planet?
- Lens 4: Global Social** 12
  - What would it mean for Amsterdam to respect the wellbeing of people worldwide?
- The City Portrait as a tool for transformative action 14
  - 1. From public portrait to city selfie 16
  - 2. New perspectives on policy analysis 17
- Principles for putting the Doughnut into practice 18
- References 20

## THE CITY PORTRAIT AS A TRANSFORMATIVE T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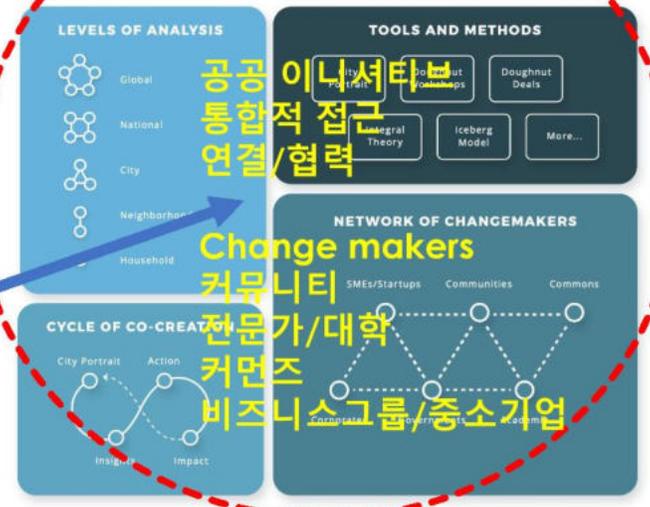
The City Portrait is a tool – a starting point for new ways of thinking, shared inspiration and transformative action towards becoming a city that thrives for people and planet, locally and globally.

Its potential as a transformative tool will be best realised when put into practice:

- by a network of changemakers, bringing government, business and academia together with innovators from SMEs, start-ups, the commons, and community networks
- on multiple levels, connecting analysis and action from the global level to the city through to the neighbourhood and household
- using a wide range of tools and methods that continually evolve through innovation and learning
- as an iterative cycle of co-creation, instigating new action and amplifying what's already working
- in the spirit of the Doughnut principles for practice (see p. 18)

**전환 접근:**  
 - 수단/자원 resource  
 - 주체  
 - 경로  
 - 규모 scale,  
 - 전략 strategy

## CREATING THRIVING CITIES a transformative approach



## 시민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을 위한 도시+시민 발전 전략 HOW CAN OUR CITY BE A HOME TO THRIVING PEOPLE IN A THRIVING PLACE, WHILE RESPECTING THE WELLBEING OF ALL PEOPLE AND THE HEALTH OF THE WHOLE PLANET?



## FROM PUBLIC POTRAIT TO CITY SELFIE

This first version of the Amsterdam City Doughnut has been created based on publicly available data and reports, essentially making it a public portrait of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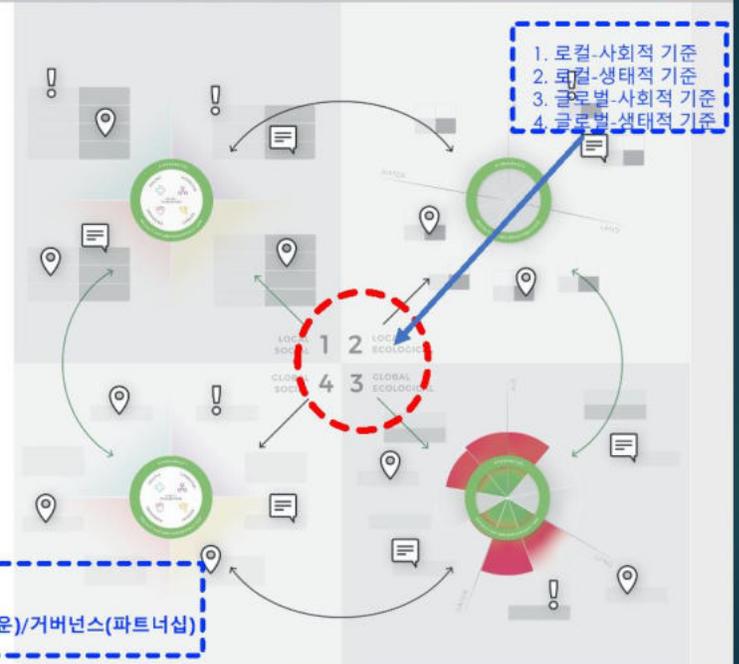
What if city changemakers were to layer onto it all of the ongoing initiatives that are helping to bring Amsterdam into the Doughnut and make it thrive? In doing so, they would effectively create the first 'City Selfie': a living image of transformations underway, thus helping to make visible the seeds of a thriving Amsterdam that is already emerging.

The goal of a community of changemakers in Amsterdam is to be pioneers of this process, inviting all contributors to bring:

- existing policies, projects, initiatives and start-ups
- stories, histories and images from diverse neighbourhoods
- visions, proposals and new initiatives for transformable city.

The resulting and unique City Selfie would be a diverse, lively, ever-changing, challenging, but also energising, and inspiring image of the city's transformation.

- 1. 기준정책**  
**2. 성공사례(바텀업-로컬랩)**  
**3. 전환정책/공공이니셔티브(탑다운)/거버넌스(파트너십)**





# 미국 시애틀의 마을국(Dept. of Neighborhoods)



English ▼  
Google Translate Disclaimer

Search ☰ Menu

## Seattle Department of Neighborhoods

Andrés Mantilla, Director

[Programs & Services](#) [Community Resource Hub](#) [Funding Opportunities](#) [Event Calendar](#) [Outreach & Engagement](#) [Blog](#)

**TAKE CARE of EACH OTHER**

**Nominate your neighbor to be recognized for Neighbor Day!**

KEEP UP KINDNESS

Today

Landmarks Preservation Board to consider nominations of University National Bank and Asa Mercer [...]

Source: Front Porch

### Contact Us

Phone: (206) 684-0464

Address: [Office](#) | [Mailing](#)

### Follow Us



### Resources

1 Get funding for your community project



Residents of Seattle who would like to have the space to grieve and honor the life of George Floyd, there will be a citywide moment of silence at 7 pm.



P-PATCH COMMUNITY GARDENING

## 2020 YEAR END REVIEW



1. 기후위기-팬데믹 시대, 전환의 필요성

2. 패러다임 전환

3. 경제의 전환과 지역순환경제

4. 지역,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 로컬의 재발견: 글로벌이 해답이 아니다!

❖ **에른스트 슈마허**

(Ernst Friedrich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 1973)

❖ **헤이젤 헨더슨** (Hazel Henderson, < Creating Alternative Futures –

**The End of Economics**>, 1977.

❖ **갈 앨퍼로비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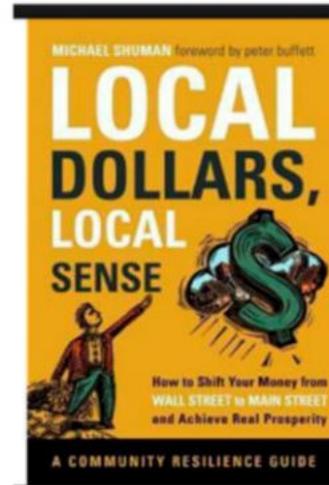
❖ **마이클 슈만,**

❖ **데이빗 콜튼**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 Local Economy, Local Banking, Community Wealth, Cooperatives in the U.S



## Next System Project



## 기후위기, 위험사회의 대안, 로컬의 강화 Local resilience on Climate Crisis and Social Risk

- ❖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은 특정지역에 특정 산업과 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식
- ❖ 기후위기에 따른 임박한 사회적 위험에서 지역경제의 자족성과 회복성을 높이려면 **순환의 규모를 지역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scale-down)**이 필요.



## WORLD LOCALIZATION DAY JUNE 21 2020

A world-changing programme of inspirational talks, interviews, films, humour

[Register to join!](#)

Confirmed presenters include:



- 경제위기에 사회적 경제가 강하듯 기후위기에는 로컬이 대안이다. 여기서 로컬이라 함은 권역, 자치구, 마을 등 여러 차원을 두루 포괄해서 지칭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지구적 범위에서 원거리 이동을 통해 조달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이것이 기후위기가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가치순환의 한계이다. 더욱이 **무역에 필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유무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지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2018).

공동체 경제를 품은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구상이 비현실이거나 꿈같은 이야기라 비판받을 수 있음. 그러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말처럼 글로벌 경제는 각국 차원에서의 거대기업들에 제공되는 막대한 **조세혜택과 보조금,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확보되는 온갖 형태의 **외부성(externalities: 외부경제+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한다면 분권화되고 분산된 지역경제보다 꼭 효율적인 경제라 말하기 어려움.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Jeon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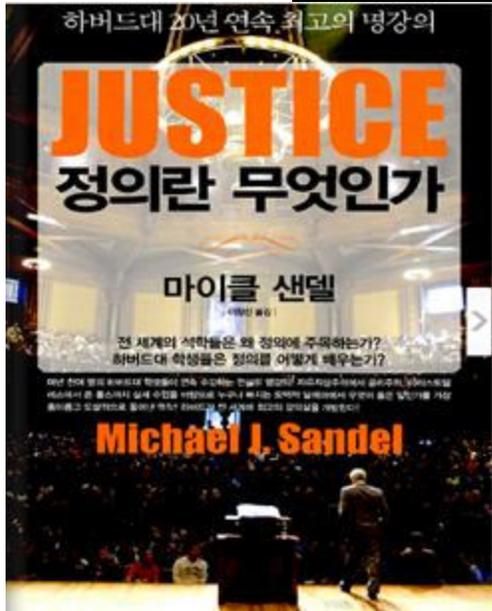
##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  
Localization for the Safe Society

2020. 9. 4. (금) 09:00~18:30  
09:00~18:30, September 4, 2020 (Fri.)

YouTube LIVE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를 검색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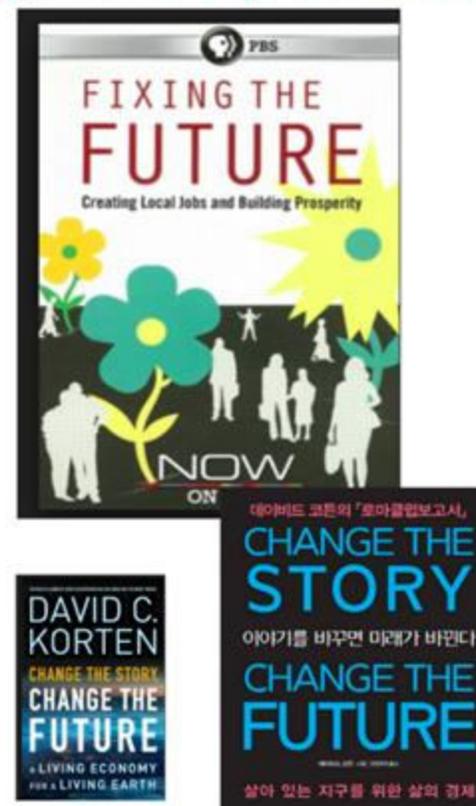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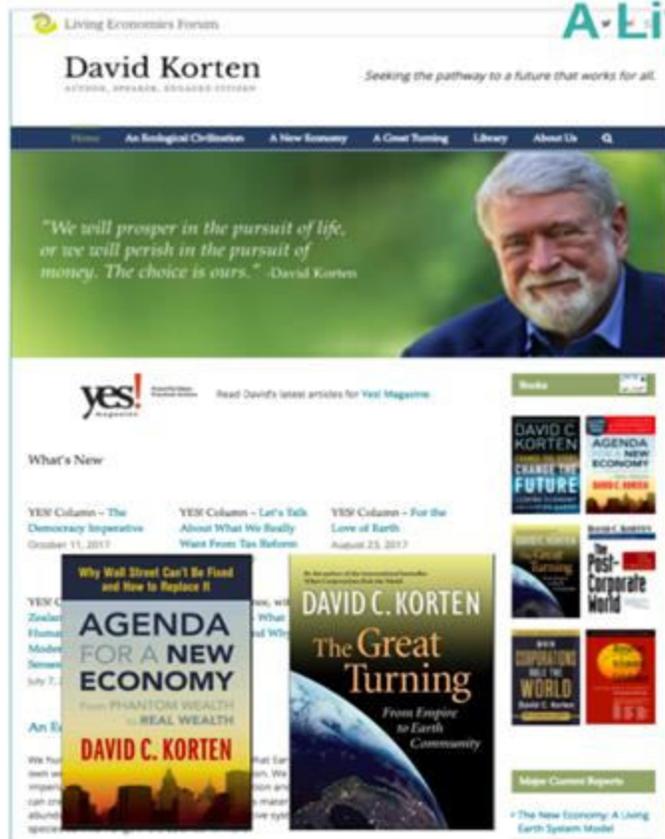
# 지역(공동체), 지역경제, 민주주의 Community, Local Economy, and Democracy





# Ecology & Local Economy for the Future

## The New Economy: A Living Earth System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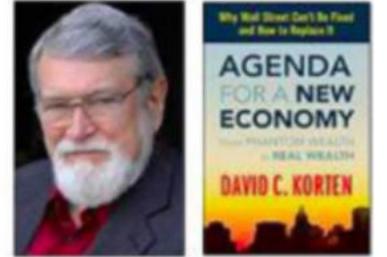


데이빗 콜튼 교수 (로마클럽  
정회원, 스탠포드 경영학 박  
사, 40여년간 아시아 개발 컨  
설턴트)

### The New Economy: Living Earth System Model:

로컬 푸드, 마을기업, 에너지  
자립, 공정무역, 보행친화 도  
시, 중산층 보호, 투기금융자  
본 규제, 커뮤니티 은행  
- 반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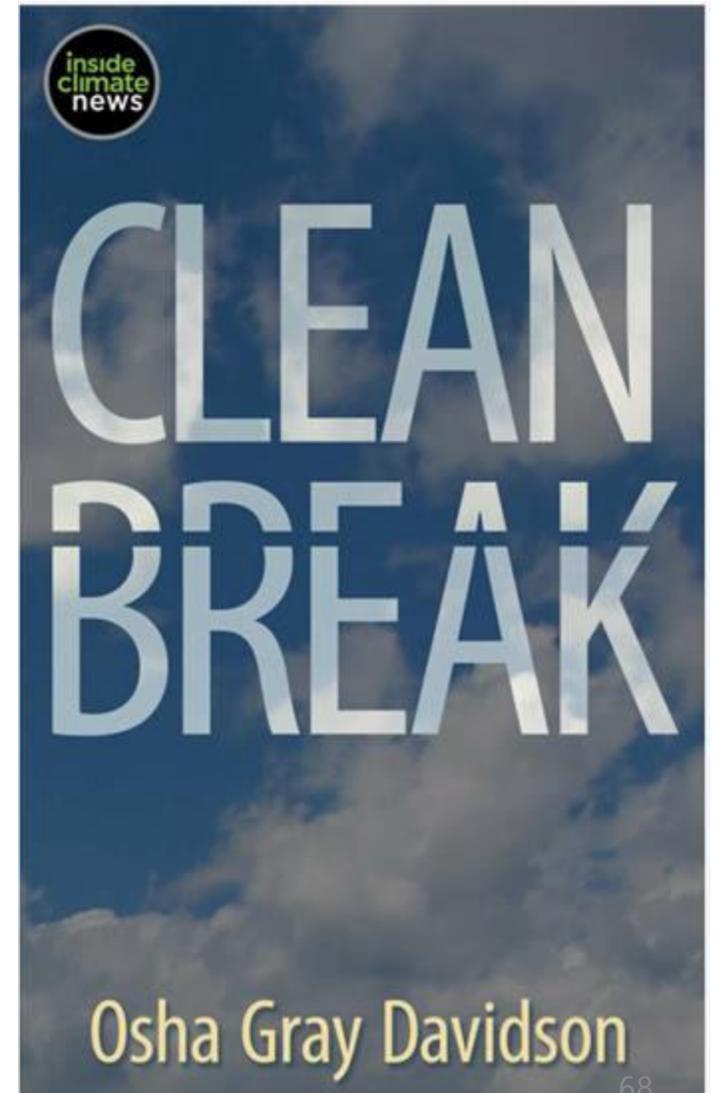
## David Korten's 10-Point Recovery Plan



1. Local and national food independence
2. Local ownership of enterprises
3. Energy independence with renewables
4. Balanced and fair trade relations
5. Walkable, bikeable communities with efficient transit
6. Strong middle class society – rebalancing wealth distribution; access to health care, education, etc.
7. Make Wall-Street's casino unprofitable – transactions tax, responsible capital ratios, surcharge on short-term gains
8. Community banks – reverse mergers and acquisitions
9. Money created by the federal gov't, not bank-issued debt
10. Federal government control of Federal Reserve – stabilize money supply, discourage speculation, contain housing and stock market bubbles

# 독일 에너지 전환의 중추(Backbone Network),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성장과 독일의 첫번째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세나우 전력(Schönau Power Supply)

-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를** 보고 충격을 받은 독일 남서부 슈바르츠 발트(Schwarzwald, 흑림)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650명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항해서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1986년)이 그 첫걸음이었음.
- 그로부터 25년 후 독일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2011년 말까지 439개로 늘어남 (Davidson, Osha Gray., 2012).
-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성과로 독일에서는 **47%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시민들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전기의 65%는 개인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므로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집중되고 기업이 지배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소규모 분산적이고 분권화된 사회로의 사회경제적 전환(social-economic transition)**이 기도 함(Arne Jungiohann, 2017).



#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성장-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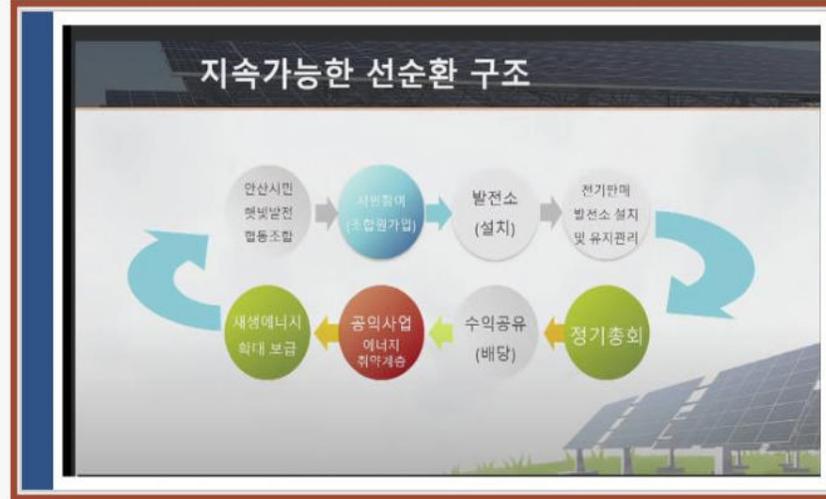


112

### 설립목적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참여공간 확대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공헌
- 사회적 기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113



114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의 목표

- 2030년 목표
  - 1,000개 협동조합 설립 운영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300개, 마을협동조합 700개
  - 300백만 조합원 가입목표
  - 10조 매출 달성
  - 공익적인 조직으로서의 위상 확립
  - 전기생산 및 판매사업, 발전소 건설 및 유지관리사업, 전기안정대행사업, 금융 및 공제사업 등

### 전국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현황

순번	조합명	순번	조합명	순번	조합명	순번	조합명
1	경기에너지협동조합	9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17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25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0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18	강서왕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6	우리동대햇빛발전협동조합
3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1	영덕햇빛발전협동조합	19	김천햇빛발전협동조합	27	태안파리마을에너지협동조합
4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12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20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28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5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13	거창에너지재생에너지협동조합	21	기후변화대응에너지협동조합	29	울릉에너지주인협동조합
6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4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22	노원햇빛에너지발전협동조합	30	천안햇빛발전협동조합
7	안성시민발전협동조합	15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23	동강햇빛발전협동조합	31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8	안양교외지역 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16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24	사실적협동조합안산시민	32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No Title]

### 전국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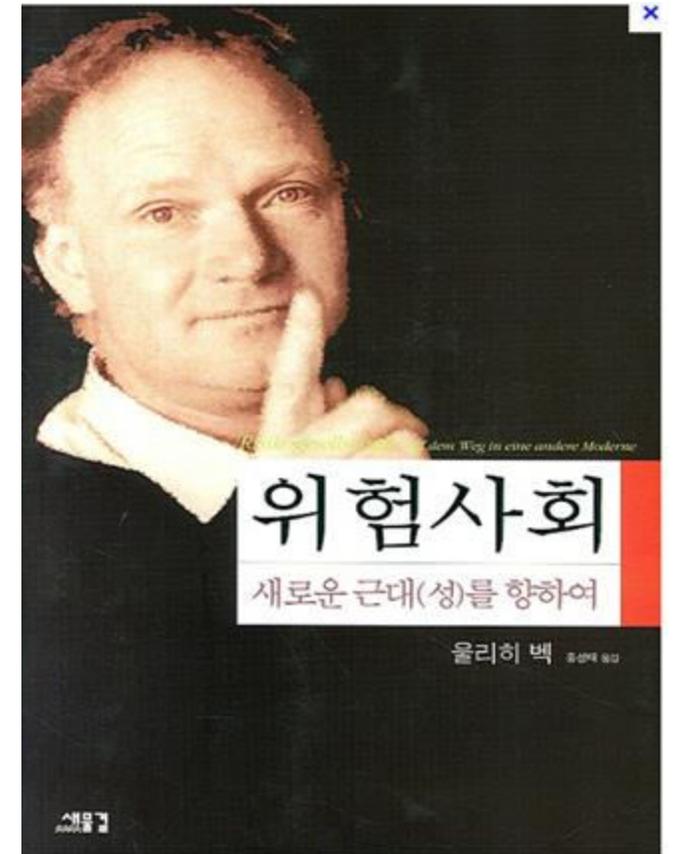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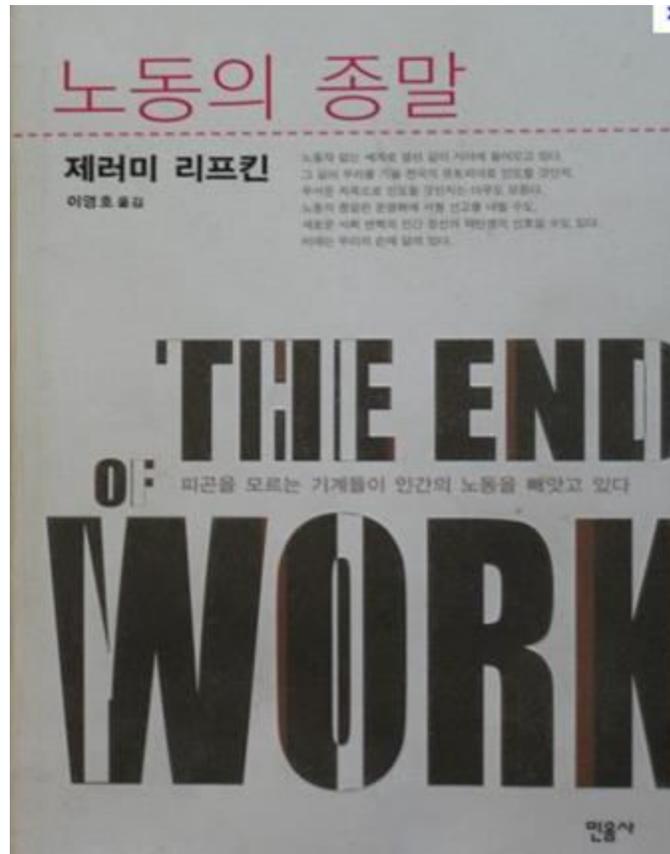
순번	조합명	순번	조합명	순번	조합명	순번	조합명
33	아산시민발전협동조합	40	내무도협동조합	47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54	에너지전환협동조합
34	충북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	41	비경햇빛발전협동조합	48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55	기독교대안교회 햇빛발전협동조합
35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42	시흥에너지협동조합	49	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56	도봉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36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43	유인에너지협동조합	50	잇고읍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57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37	김포에너지협동조합	44	익동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51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38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5	광안에너지협동조합	52	안성에너지협동조합		
39	대부분 정부를 대항발전협동조합	46	햇빛마을 학교협동조합	53	충주햇빛발전협동조합		

# 풀타임 고용 시대의 종언

❖ 현대사회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고용의 종말 (end of employment)'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그동안 너무나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풀타임(full-time) 고용사회는 이제 하나의 신기루 (Rifkin, J. 1995)

❖ 산업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고용불안정과 저고용이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 완전고용과 실업이라는 이분법적 세상에서 만들어진 처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저고용에 따른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으로 전면화 (Beck, U.,1997; Beck, U.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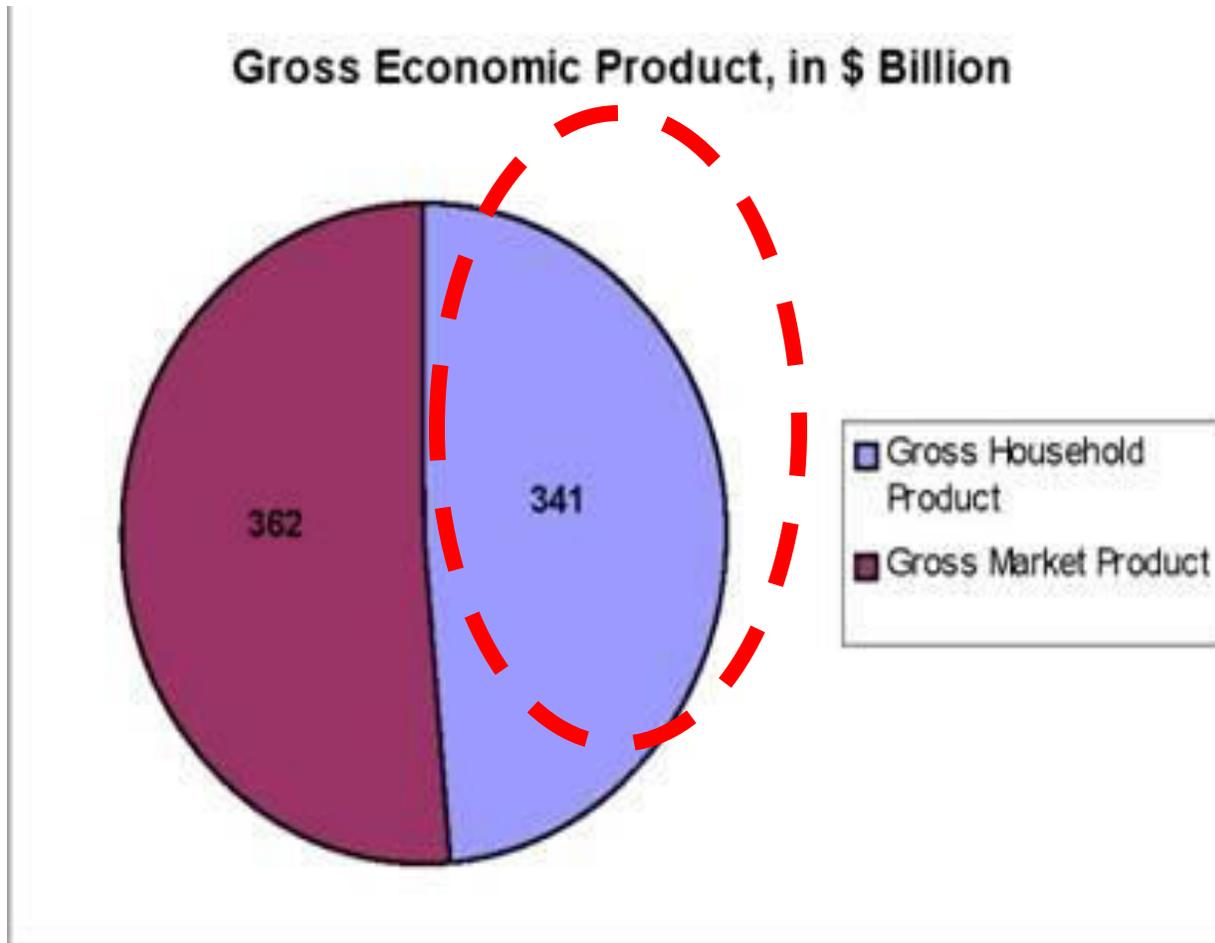
# 경제활동 전체와 고용노동의 비교

출처: Community Economies Collective, 2001, Cameron, J.(2008)

고용노동 이 전체 경제  
를 구성하는 경제활동  
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빙산의 일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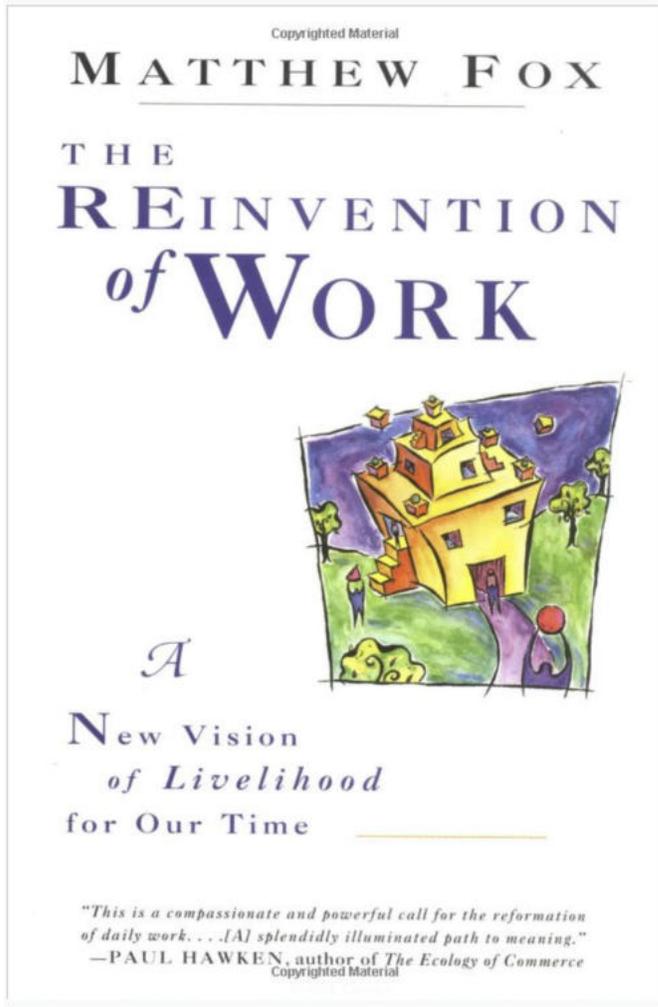


# GDP 대 비화폐적 경제활동 가치 비교 (1992년, 호주), 출처: Cameron, J.(2008), <표 2>



서구(호주,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은 고용에 기초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가치는 GDP 규모에 거의 육박

# 미국의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이자 생태학자 Matthew Fox의 저서, 노동의 재창조(reinvention)



❖ 낮은 성장 자본주의와 하이테크 자본주의에서는 수백만 사람들의 임금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짐.

❖ 생태적 전환을 통한 노동의 재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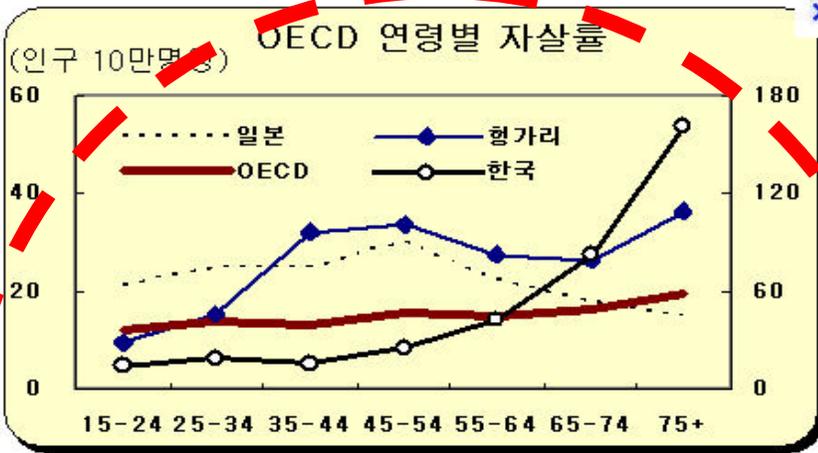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일은 소멸되지 않는다. 환경이나 기후보호 영역에서 할 일은 끝도 없이 많다.. "고용이란 일과 세계 속에서 우리가 벌이는 활동을 대하는 시각을 강화할 때 창출 될 수 있다"

❖ 생태적 전환을 통한 고용창출 (덴마크)

: 1992년부터 생태적 세계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저하게 낮은 실업률과 낮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생태적인 세계개혁의 결과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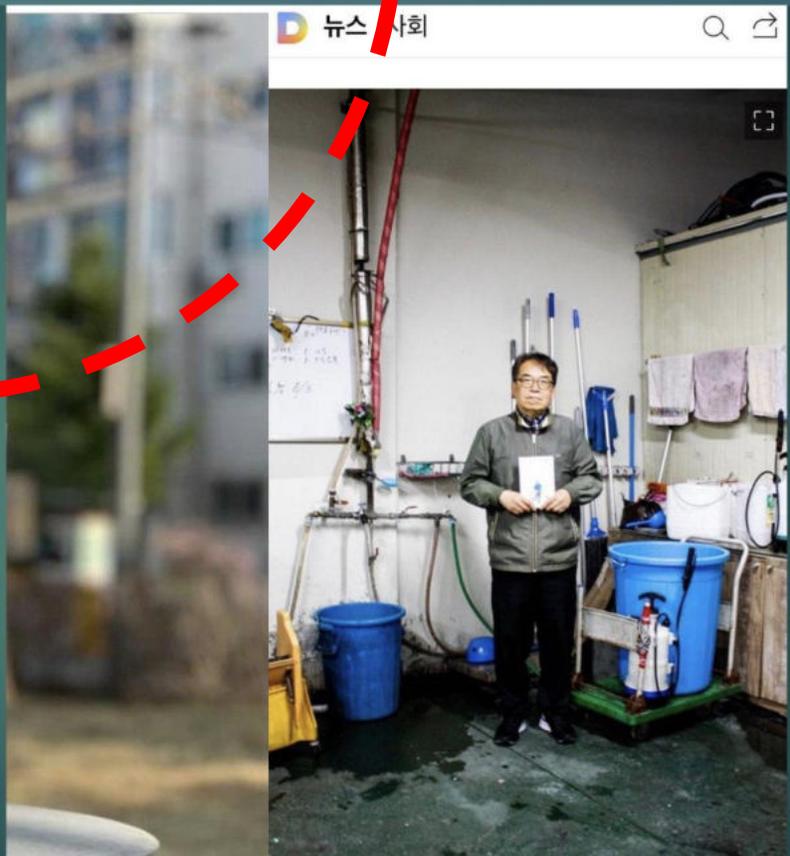
# 성장, 진화하는 사회적 경제

-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영역 증가
- 지역에 기반하고 돌봄 노동,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주택, 환경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elihood)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 현대 사회의 네트워크화 경향 혹은 전통적인 조직과 경계의 해체경향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
- 정의와 범주가 진화과정에 있는 개념(an evolving, not yet universally defined, concept)(ILO, 2010)



**연말뉴스**  
**고령층 평균 49세에 직장 그만두지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객민서 입력 2021. 07. 27. 12:00 수정 2021. 07. 27. 13:35 댓글 380개

10명 중 7명은 장래 근로 희망.. "생활비 보태야"  
 월평균 연금수령액 64만원·희망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원 미만만 가장 많아



# 스마트 디지털 A.I 기술 :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한계비용제로 사회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유경제(shared economy)의 확대 전망

- ❖ 공유경제 확산과 확대의 기술적, 경제적 배경을 설명. 즉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성과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 인터넷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신경네트워크)
- ❖ 거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비용이 거의 0으로 수렴되게 함으로써 자유재(free goods)와 풍요로운 자원(제한된 자원이 아닌!)을 보편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배분에서의 시장영역과 이윤창출영역을 축소시키고 글로벌 공유자원 (a global Collaborative Commons)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시키게 될 것으로 예견 (Rifkin, Jeremy)



-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결합을 통해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안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고 선언
- ❖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와 구별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핵심 경제 단위로서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들을 제시**
- ❖ 그의 제3차 산업혁명 논의는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달리 경제 산업구조 재편과 고용 전략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분산과 사회 권력의 분산이라는, **이중의 의미에서의 ‘파워 투 더 피플(power to the people)’**에 대한 기획임을 강조.
- ❖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분권화된 ‘정치 시스템’과 보다 분산된 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가 지탱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

- 새로운 경제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사회는 **소수 비주류 급진적 경제학자의 머리카락 속에 간직된 이상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님**. 특히 고용창출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적 경제의 단위 요소들은 **당위와 윤리의 차원에서 이미 실행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현실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실험의 사례들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음.
- ‘협력적 공유사회’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 경제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대안적 경제의 다른 이름... **주거, 돌봄, 재생에너지, 도시농업과 도농 교류, 보육, 의료, 온라인 오픈 플랫폼과 쉐어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하고 성장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공동 부엌(communal kitchens), 지역 재단, 전환마을 등이 그 형태들**. 여기에 사회적금융, 크라우드 펀딩, 지역화폐, 대안화폐, P2P 대출, 타임뱅크(Time Bank), 크레딧 유니온(credit union), 윤리적인 은행 등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들이 협력적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임**.



## 탄소중립위한 대안경제와 사회적 경제



2021년 04월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에너지 전환, 이를 통한 지구 기후의 구원은 가능하다. (...) **태양 에너지 혁명은 21세기의 고용창출 정책을 위해서 현재의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앞으로 에너지의 전환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81-82).

“원전은 대안이 아니다. 독일의 환경 정책가 프란츠 알트의 말은 원전 불가피론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반대하는 사람은 원자력 이용을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귀신을 쫓기 위해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막아내자는 말인가? 페스트를 반대하는 사람은 콜레라를 찬성해야 한다는 말인가?”**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57).



“생태적 전환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현재 부딪친 생태위기에 대한 필수적 응답의 결과물이다. 생태위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은 도시의 회복탄력성/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탄력성/복원력이란 “근본적인 구조, 기능, 내부피드백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견디는 시스템 능력이다”

(William E. Rees, “Thinking ‘Resilience,’” in Richard Heinberg and Daniel Lerch, eds., *The Post Carbon Reader: Managing the 21st Century’s Sustainability Crises*, 2010).

“공동체 건설, 사회적 경제, 에너지 분산, 재생에너지 사용, 공동체지원농업 등 모든 프로그램은 도시의 회복탄력성/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가 음식, 주거, 교육, 교통, 보살핌을 스스로 해결할수록 그 공동체는 스스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며 잠복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Michael Shuman, *Local Dollars, Local Sense: How to Shift Your Money 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and Achieve Real Prosperity*, Community Resilience Guides, Kindle Edition, 2010)

# 그린 뉴딜과 로컬

• 중앙정부 - 지자체 -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

중앙정부



- 혁신적 전환의 방향제시자
- 최초의 공공투자자
- 기후 비상사태 선언
- 국가적 그린뉴딜 계획
- 국가적 제도/입법지원

지방정부



- 지방상황에 맞는 그린뉴딜 실행계획 및 집행
- 지역 에너지공사 등 실행 전담 조직 신설
- 재생에너지 확대
- 지역별 녹색교통 전환
- 지역별 그린 리모델링
- 지역별 순환경제 구축

지역 커뮤니티



- 그린뉴딜 지역 커뮤니티/사회적 경제 주체 형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기후위기 교육
- 에너지 자립마을
- 자전거, 전기차 전환 참여
- 주택 에너지 효율화 참여

자료: 김병권(2021)



# 파리 15분 도시 + 그린 뉴딜 30분 사회적경제 서클



만 이달고 파리시정의 15분 도시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일하고, 놀고, 물건을 구매하고, 보살피고, 배우는 모든 서비스를 15분 내에 가능하도록 자동차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걸거나 자전거를 통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자료: 이유진 (2021)

# 15분 동네 건강, 돌봄, 먹거리, 지역경제의 연결

## 1. 추진 배경

감염병시대 주거 및 건강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돌봄 복지정거장

01 | 핵심사업 02 | 03 | 04

### 코로나19, 대도시 건강·고용·주거 약자층 피해 집중, 전통적 공공복지의 신수요 VS 안전 딜레마 발생

**"재난의 양극화"**  
취약층 일상의 붕괴와 지역 지원체계 붕괴

취약노인 건강약자 피해집중

취약층 아동청소년 교육역거리 문제 급증

**"공공 의존도 증가"**  
K방역·긴급지원·긴급복지 ↑  
But 강력한 거리두기 대책 ↓

2021 어르신 무료급식 82% 중단

내방 및 방문 규제

취약계층 아동 57% 방문상담 중단

**"자영업 위기 지속"**  
지역상권의 다기능화 필요

자영업 위기 지속

지역상권의 다기능화 필요

자료: 국회미래연구소 2020 어르신 재난 대응 실태조사, 자료: 세계일보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6명 돌봄사각지대조사

전통적 사회복지 공급 주체·방식·파트너십의 혁신 필요

## 5-1.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감염병시대 주거 및 건강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돌봄 복지정거장

01 | 02 | 차별성 03 | 04

###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면&비대면 믹스형, 지역상권 & 시민 협치형 서로돌봄망 구축

**사업적 관점**

**생활권 단위로 분산된 건강예방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 건강예방 맞춤형 영양식, 고품유물간 해소를 위한 관계망 형성 등
- 사회적경제의 참여로 근린상가형 복지정거장 운영 및 지역순환경제형 일자리 창출

**복지터미널·돌봄정거장 협치모델로 공공복지 한계 해소**

- 온라인 앱 활용, 서비스 이용자 접근성 및 중단기 공백 최소화
- 민간주도 근린상가 활용, 이용자 낙인/거부감 없고 공공시설 폐쇄시 유연한 운영 가능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접근성과 자율성 ↑

**공공의존형 넘어 시민참여를 통한 상호부조형 안전망 확충**

- 사회적경제, 골목상권, 시민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처 발굴
- 기존 재정지원 → 전문 복지인 → 취약계층의 일방형성 탈피, 양방향 돌봄과 분산형 복지인프라 구축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효과 측정평가 및 국제확산**

- 한림대 초대 원격진료센터(간담무임교수) 등과 협력, 효과성 측정 및 평가
- 글로벌사회적경제포럼(GSEF)을 통해 2021년 10월 멕시코총회에서 국제무대 소개

**그린돌봄정거장 조성(안)**

그린역거리 (50명)  
• 공유주방  
• 공공급식

소셜 스타디오키아레 (30명)  
• 사무공간  
• 청소년상담

시니어클럽 (20명)  
• 10평운동장 & 재사용가능가게

재활용품노터

자료: 이은애 (2021)

## 2. 추진전략

감염병시대, 주거 및 건강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돌봄 복지정거장

01 | 핵심사업 02 | 03 | 04

### 감염병시대, 주거 및 건강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15분 근린지역 생태적 건강 먹거리 지역돌봄' 모델화

**코로나19, 신수요 대응 강화**

- 솔리퍼생활권 분산형 복지방, 인구 50인 이상 자치구별 2-3개 복지거점, 거리두기 강화시 내방/방문 서비스 한계
- 온오프라인 서비스: 공공&전통복지 패시지 유지 가능
- 시민 서로돌봄서클: 복지관의 전문 사재관리 연계
- 자영업의 다기능화: 동네상가가 복지 공급자로 참여
- 생태적 전환: 건강한 먹거리, 자원순환 동네일자리로 운영

**평상시 & 재난시 돌봄공백 줄일 협치형 커뮤니티케어 구축**

- 건강약자: 치료 → 사전예방 건강관리로 지역돌봄 전환
- 주거약자: 근린생활권 공유형 커뮤니티 공간 확충
- 고용약자: 자영업자/청년/시민 참여형 복지 일자리 창출
- 환경약자: 중산층 중심의 친환경 먹거리/모바일리 극복

**취약층 밀집 주거지 특성별 그린돌봄정거장 구축**

• 종합복지관/활동/SOS센터(복지터미널) 허브: 직영서비스 중심 → 신수요 대응 건학구축과 근린 상가내 분산형 복지공급망(복지정거장, 시민서클) 전문지원, 연계

• 주거유형별 운영모델 개발: 전국 확산 공공임대(APT형)/자율주거(자립/신도시)입주지원

• 대면 & 비대면 서비스 통합: 기후위기 고려, 생태적 먹거리, 건강관리, 교육 서비스사업/주제 통합

근린생활권 분산형 돌봄정거장 30인명당 (1개동) 1개 설치, 확산 425개동 \*30명=12,750명 고용정착

인구 20만명당 1개, 전통 복지기관 한계 극복

## 5-2. 기존 참여기관과의 차별성

감염병시대, 주거 및 건강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돌봄 복지정거장

01 | 02 | 차별성 03 | 04

### 다중 협력체계를 활용한 자원융합 및 복합 운영 가능

**통합건강관리+돌봄메이저 양성**

헬스브릿지 HEALTHBRIDGE

**생태먹거리+돌봄 연계 지원**

소녀방앗간

**커뮤니티형 돌봄 장터**

The Good Work 차이나임프 FAIR SPACE social enterprise

**협력1 건강보험공단+한림대 의대**

- 한림대 의대, 국민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건강기록 및 건강검진 열람을 연계하는 개인별 건강기록부, 통합돌봄플랫폼 개발

**협력2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건강 코디네이터 100명 및 돌봄 인력 양성 2000명 양성에 50플러스 연계하여 건강 중심 통합 돌봄의 일자리 생태계 마련

**협력3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도시락 제조 및 마을배달 시 보람일자리 연계
- 자원활동 어르신 요리 교실 지원, 식재료 중심 밀키트 꾸미기로 취약계층 식문화 개선

**협력4 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 맞춤식 도시락 공동 생산 및 공급
- 공공급식센터 식자재 및 물류 이용한 지역 내 건강 먹거리 규모도 확대

**협력1 대기업 사회공헌 서비스**

- 대기업 사회공헌단 자원봉사 '핸드온' 등 연계
- 기부에서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확대, 상품 제작 등 단순 일거리 창출

**협력2 배달의민족**

- 소녀방앗간-배달의민족 협력으로 취약계층 도시락 매일 500개 배달 중

**협력3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도시락 제조 및 마을배달 시 보람일자리 연계
- 자원활동 어르신 요리 교실 지원, 식재료 중심 밀키트 꾸미기로 취약계층 식문화 개선

**협력4 리엔라이프**

- 리엔라이프를 정력 서로 돌봄 가능 수행
- 자원봉사자 중심의 활동형 커뮤니티 구축

**[No Title] 리엔라이프를 정력 서로 돌봄 가능 수행**

- 자원봉사자 중심의 활동형 커뮤니티 구축

시니어클럽: 자원활동, 취약계층 돌봄 아동·청소년, 교육, 중·고등 학생

대산: 수혜자, 유아, 아동, 중·고등 학생

유형: 대면형, 직접 전문 지식 관련 병행적 연구

기초1: 지역복지, 비대면 자원봉사, 휴먼 존단 없는 복지 실현

기초2: 지역 수요, 자재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기부물 구성

기초3: 커뮤니티, 대학생 자원봉사자, 소년·청소년 구성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적 전환을 위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공동선언(2019.9.26)

I-SEOUL U 서울특별시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nsition City, Seoul 2019

## 2019 서울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GDP를 넘어 생태적 전환으로  
Beyond GDP toward Ecological Transition

기간 | 2019. 9.26(목)~27(금) 장소 | 서울시청 8층 대강당

9.26(목) 분량적 전환과 Beyond GDP  
9.27(금) 지표가 도시를 바꾼다: 도시전환을 위한 나침반, SDGs와 행복지표

주요 초청연사  
 조계영 (서울시 차장, 교육감)  
 강인숙 (서울시 부시장)  
 김대중 (서울시 부시장)  
 김민준 (서울시 부시장)  
 김민준 (서울시 부시장)  
 김민준 (서울시 부시장)

사전등록 QR코드  
<https://www.transitioncity.co.kr>

### 공동선언문

기후위기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과 공동노력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

우리는 기후비상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2019년 들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이 앞장서 기후위기 또는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백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각 나라가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는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소집했고 전세계 7,000개가 넘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기후비상사태 선포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 전환을 실현할 정책구상의 단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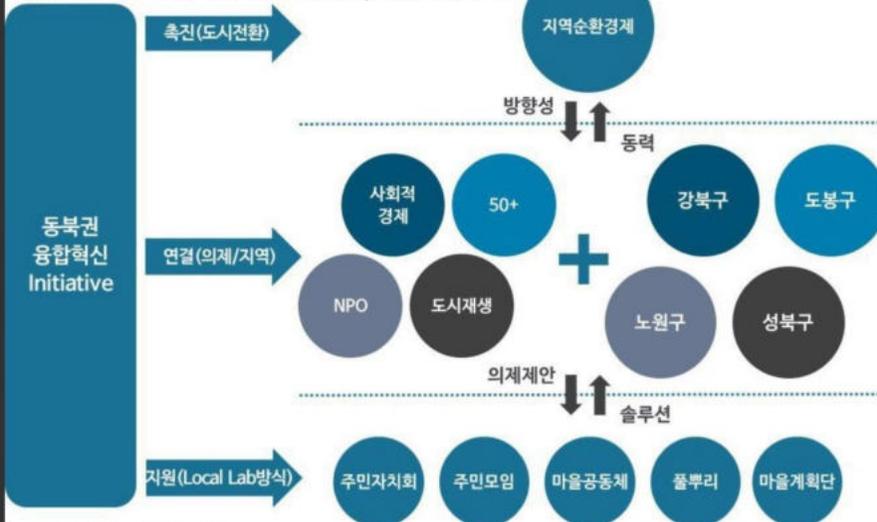
지난 10여년 박원순과 함께 한 지역혁신 정책사례

공간	마을	수십만명의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동	찾동,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주민자치혁신모델
	자치구	협치, 자치구별 혁신중간지원조직 설립
	권역	생활권계획,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설립 자치구 간 협력 요원, 아직은 상상의 공동체 도시에서 마을의 가능성 마련
의제	마을공동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모델 제시
	사회적경제	중앙정부보다 앞선 도시재생정책, 주민참여형 모델로 평가
	도시재생	건물은 마련되었지만 사람과 콘텐츠 부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협력을 통한 교육혁신모델
	혁신교육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
	협치	전국 최초의 50+ 모델 제시
	50+	청년청 등 선도적 청년정책
	청년정책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자립마을 등 혁신모델 제시
	생태환경	원전하나줄이기 이후 결정적 후속타 부족

	생산	유통	소비	투자
자원순환 (폐기물)	마을	동	자치구	광역
에너지	자치구	동	동	광역
커뮤니티케어	동	동	동	광역
마을관리 (그린리모델링)	동	동	동	광역
모빌리티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먹거리	마을	동	자치구	자치구

지역 순환경제 정책모델 Matrix

## <참고> 권역형 정책의 사례 (서울 동북4구)



## 단위별 지역순환경제 사업

	마을	동	자치구	권역	서울시
자원순환	재활용정거장(현)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리모델링사업(현)	사회적경제특구사업 (자원순환사업)(현)	권역내 분업모델 구축 (서울시서북권 사례 검토)	
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현)	에너지전환동 사업 우리동네 그린별당 건립 (동 단위 혁신거점, 이 텍스트안에 공간구상을 여기에서 참조)	에너지자립혁신지구(현)	발전, 발전, 공간, 민간으로 새분화한 맞춤형 프로젝트 지원	
도시농업	마을텃밭(현)	공동7번 농업, 가드닝 동 단위 가드닝활동	도시농업네트워크(현)	도농교류사업 도시농업, 가드닝 교육 50+ 캠퍼스 연계	청무부시장 주도의 혁신융합추진단 운영 - 혁신기획관 주무부서 - 지역순환경제연구소 설립 - 10분 (안) 동네 정책 추진(동·세·누·일·사업) - 자원순환일자리 확보(동별 02)의 마을관리사 채용) - 주민자치회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다양한 지역관리사업 위탁추진
커뮤니티 케어	마을단위 돌봄교육 및 돌봄망 조성	복지관(현) 찾동사업(현) 주민자치회 돌봄분과(현)	복지관(현) 돌봄네트워크, 돌봄사회적경제(현)	50+ 캠퍼스 연계 고령친화산업화 전략 추진	
먹거리	마을공동체(현) 마을부엌(현)	전통시장 연계 동 단위 마을급식체계 구축 동·세·일 연계 먹거리(현·동·조합 구성)	구단위 시장안보물류센터 - 도농교류, 내부유통망 점검 등	권역별 급식모델 (이상훈의연)	
안전	마을단위 안전지도 제작 마을단위 안전교육 및 훈련전행	동 단위 안전네트워크 구축 마을자원(ox, 수리업자)을 활용한 마을관리모델 (마을관리소)	서울시 협치정책 연계 안전협치분과의무화 (취약계층 대미스 등 규모있는 사업추진)	위기관리생시 권역내 협력체계 마련 (예를 들어, 마스코트당구 등)	

# 지역 순환경제 정책모델 Matrix

	생산	유통	소비	투자
자원순환 (폐기물)	마을	동	자치구	광역
에너지	자치구	동	동	광역
커뮤니티케어	동	동	동	광역
마을관리 (그린리모델링)	동	동	동	광역
모빌리티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먹거리	마을	동	자치구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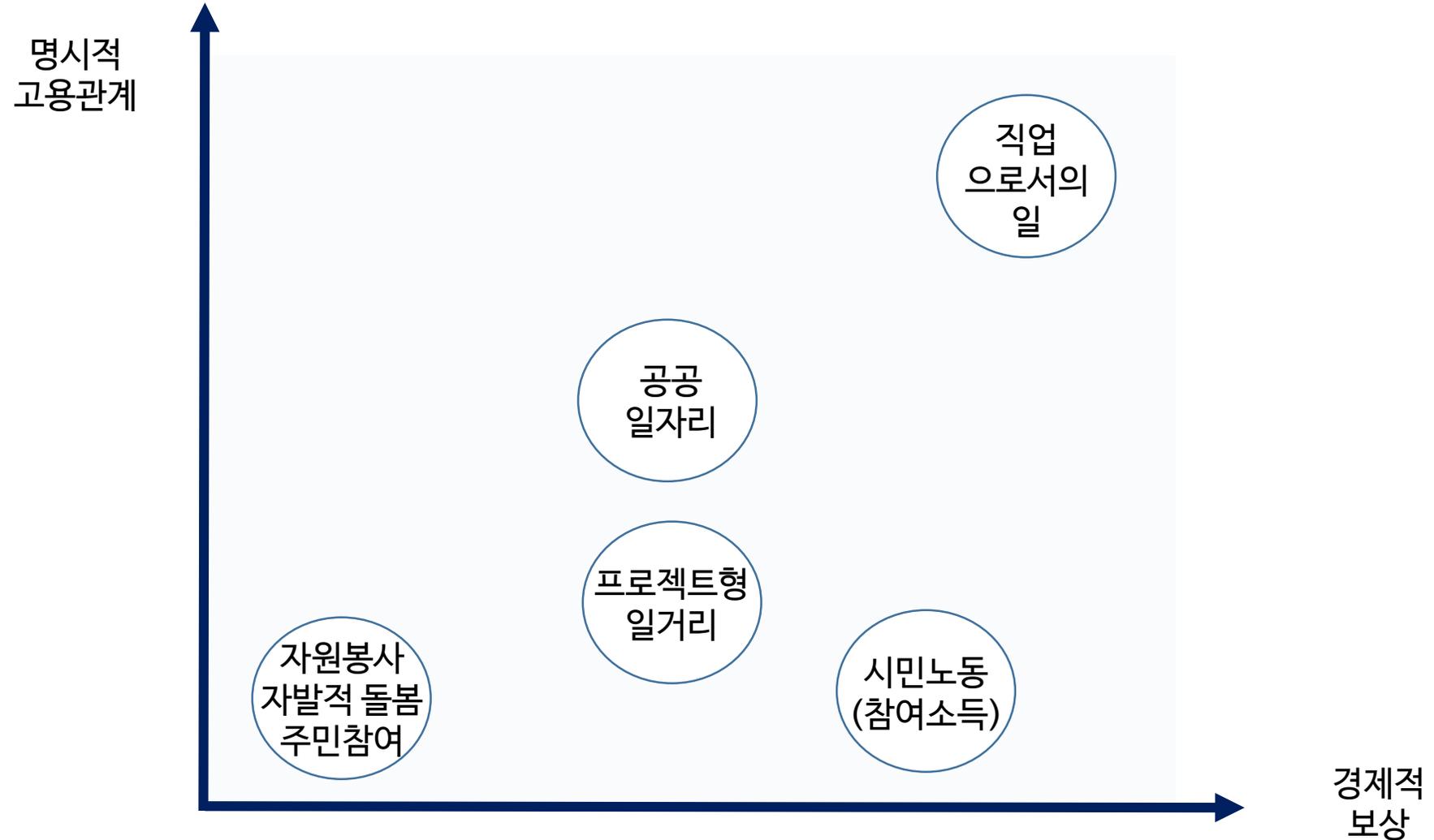
서울 마을형 일자리 대외확산 포럼 "좋은 일 하시네요 season2"  
2021.10.29

# 일의 의미와 돌봄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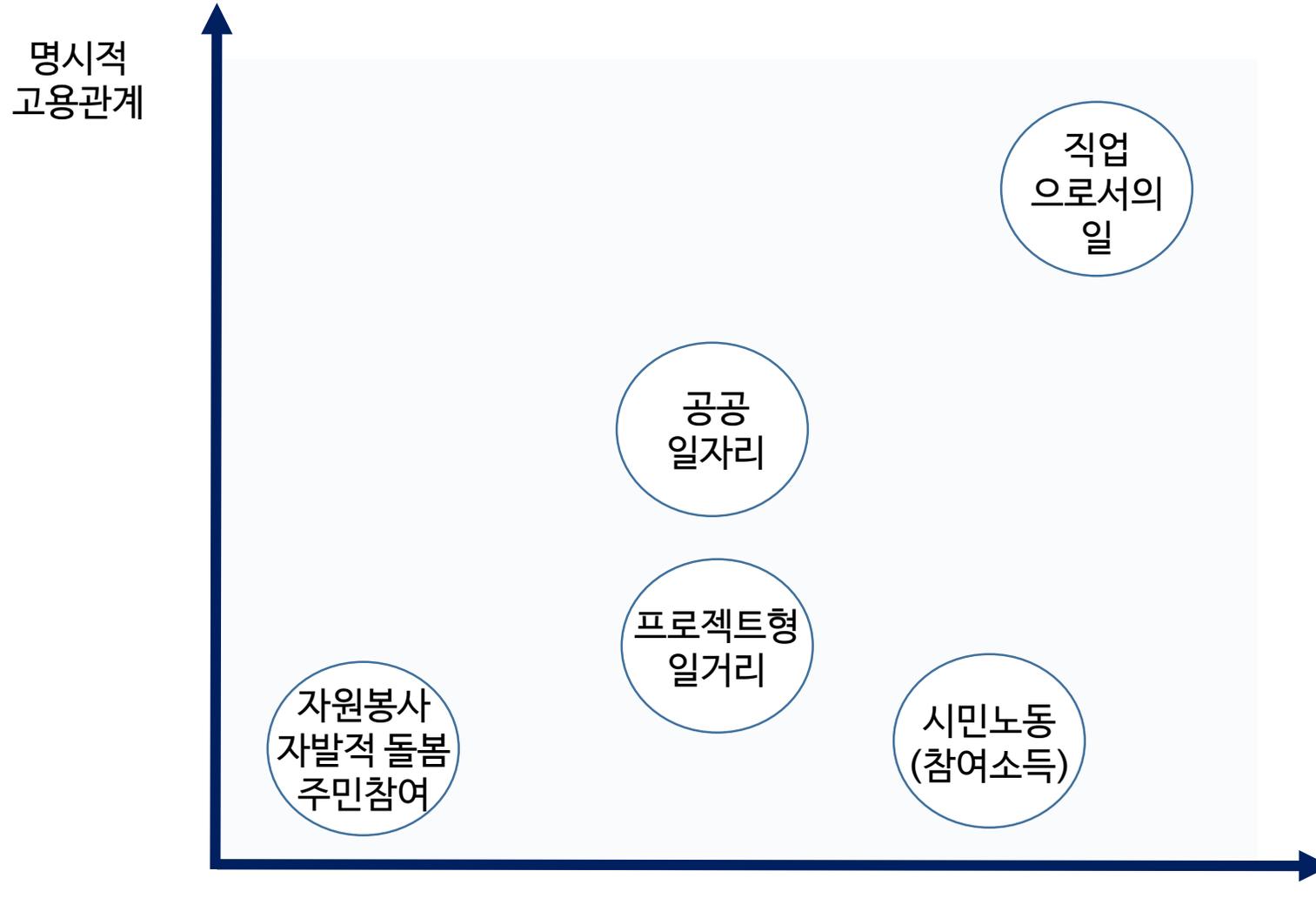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 마을에서의 '일'의 종류



# 마을에서의 '일'의 종류



Q.

## 1. 비영리 활동가

- 재단 직원?
- 2년짜리 프로젝트?
- N잡러?

## 2.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직원?
- 협동조합 이사장?
- 마을카페 바리스타?



## ‘직업으로서의 일’에는 사회적 가치가 없나? – 일의 의미

- 일하는 사람들은 소외 받지 않는 자율성, 지배 받지 않는 자유, 타인과의 존엄한 관계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가지기를 바람(Reader, 2005)
-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며,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의미를 실감함(Bailey 외, 2016; Lips-Wiersma 외, 2012)
-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의 4가지 차원은 내적인 자아,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잠재력을 충분히 표출하는 것(Lips-Wiersma 외, 2012)
- 정의로운 사회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라는 점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중요한 역량(Capabilities)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Yeoman, 2014)

→ “국가(정부)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 노동 대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필요성

- 자동화, 무인화 등 기술 변화와 생산성 증대에 따른 노동 대전환의 양상
  - '일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짐
-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남는 노동력에게 보장해야 하는 것은?
  - 소득인가? 아니면 일자리 자체인가?
- 사람에게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면
  - 개인들에게는 의미 있고, 공동체 유지에 꼭 필요한 일자리들을 어떻게 보장하고 유지시킬 것인지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 저비용으로 저숙련자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멈추고, 사회적 재평가 및 사회적 보상, 인센티브 구조 등을 통해 선순환시키는 '하이로드 전략' 필요



## ‘돌봄 경제’ 중요성 대두

- 돌봄 경제의 ‘저비용의 악순환 전략’에 따른 문제
  - 생산성 증대로 노동 시간 줄어도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가족 돌봄의 부담
  -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가 낮으므로 가족(특히 여성의) 돌봄 노동 경감되기 어려움
- 돌봄이 ‘의미 있는 일’로 재평가될 수 있다면?
  - 돌봄 인력 및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짐
  - 부분노동이 지불노동 범주로 넘어가므로 ‘돌봄 경제’가 확장
  -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서 삶의 질 높아지고 여가 증대
  - 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신뢰 증가



##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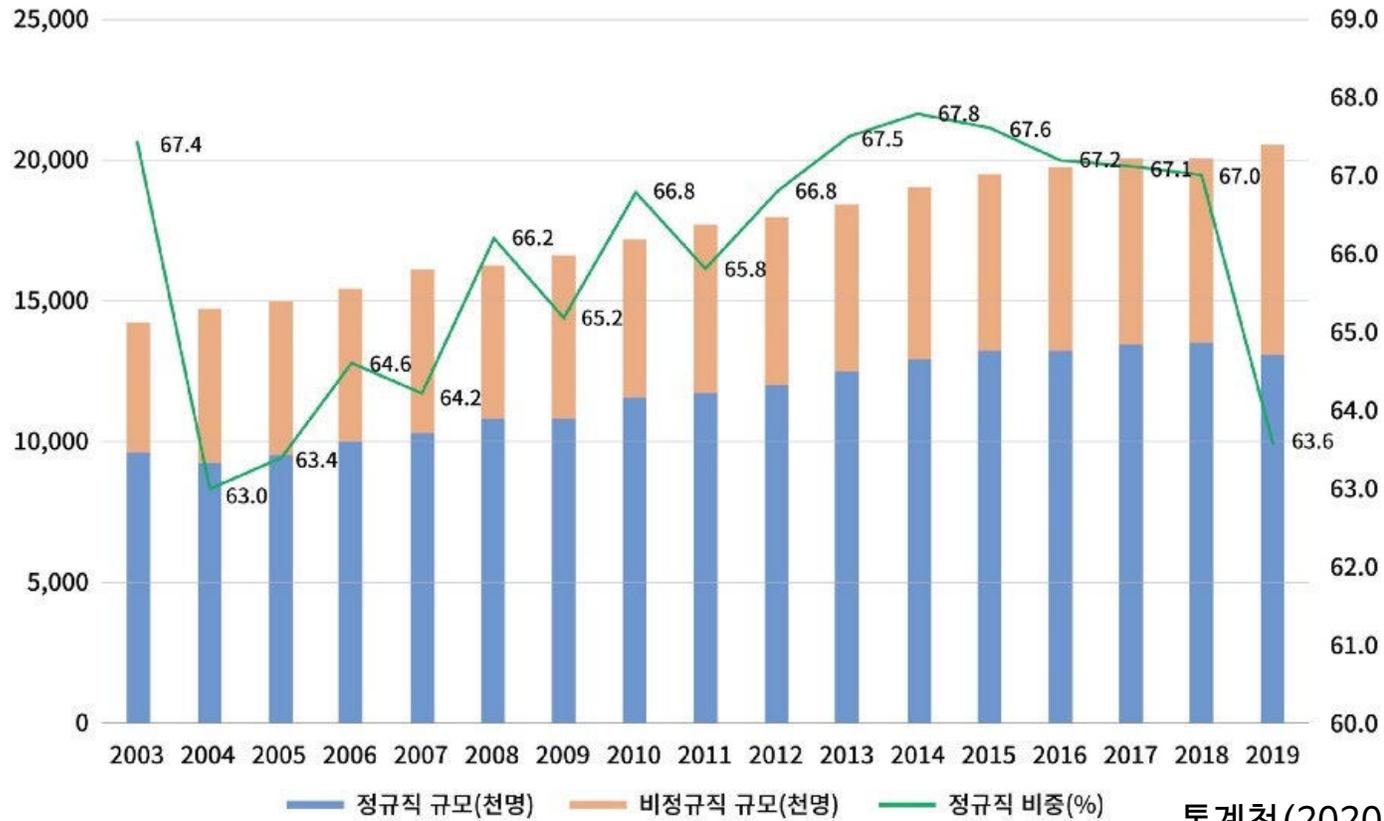
- 돌보는 일은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의 속성 가짐
  - 재생산에 기여하며, 사람에게 타인과 협력하면서 잘 살아가는 능력을 발전시켜 주기 때문(Held, 2006)
- 코로나19 이후 재평가되고 있는 ‘필수노동’
  -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로 인정됨
  - 높이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필수노동은 ‘의미 있는 일’의 개념에 가장 부합함



# ‘돌보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나? - 사회통념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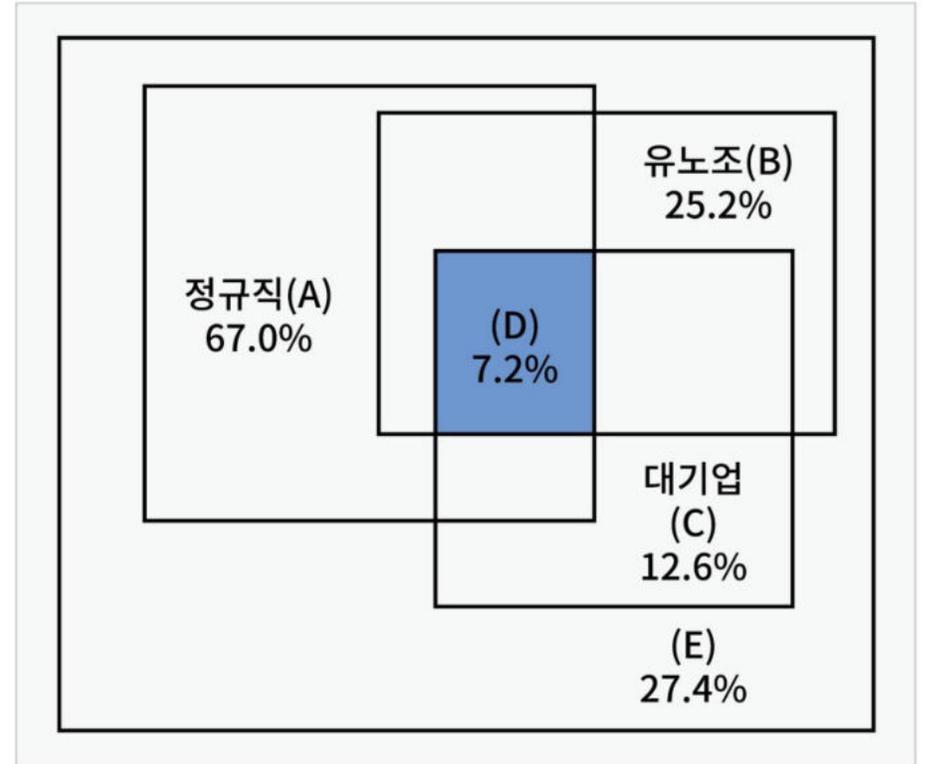


#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일자리)’이란?



통계청(2020)

(단위 : %)



김복순(2019)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한 줄로 서는 사회는 정상인가?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새로운 경향들

자율성과  
통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전체 (1000명)			18~29세(182명)		
	1순위	1+2순위	1+2+3순위	1순위	1+2순위	1+2+3순위
지금부터 정년퇴직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인지 여부	39.9	54.6	62.0	28.2	43.2	46.8
한 번 고용계약을 맺으면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인지 여부	20.9	29.4	34.4	15.4	21.7	26.0
절대적인 임금 수준	9.8	21.6	29.3	14.5	31.0	36.6
4대 보험 가입 여부	5.3	15.4	25.9	5.7	11.6	18.7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지 여부	5.0	21.7	32.4	7.4	25.7	36.1
연차 및 휴일 보장, 정시 퇴근 등으로 직장 밖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4.6	18.7	38.1	9.1	25.2	52.7
직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1	8.0	12.5	5.1	9.1	13.8
내가 전문성 또는 숙련도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 및 구조인지 여부	3.1	7.1	12.9	4.2	8.3	14.5
업무에 있어서 나의 재량과 자율성, 창의성 등이 반영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2.8	8.3	16.5	2.2	6.0	10.1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 개선 의견을 제시해도 불이익이 없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1.8	5.8	14.4	4.8	8.3	18.6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지 여부	1.4	4.4	8.8	2.1	4.0	11.3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 및 단축, 재택근무, 휴직 등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1.3	5.1	12.7	1.5	5.8	14.9

황세원(2020)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새로운 경향들

문항	카테고리	선택 횟수
충분한 연차휴가(20일 정도), 몰아서 사용 가능	통제권	52
육아, 학업 등 사유로 근무시간 단축, 휴직 가능	통제권	51
주 3~4일에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쉴 수 있음	통제권	47
유망 산업군에 속함	안정성	37
업무 시작과 끝 시간(출퇴근 시간) 조절 가능	통제권	35
희망 연봉의 120%의 초임	임금	34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 업무해도 무방함	통제권	31
근무처가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음	주관적 만족도	31
업무 방식 및 세부 사항을 담당자가 바꿀 수 있음	통제권	28
거래업체, 하청업체 등 대할 때 윤리성 강조	주관적 만족도	28

청년재단-LAB2050  
20대 구직자 62명 대상  
랩실험 결과

##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새로운 경향들

전일제 일자리  
이외의  
다양한 일자리  
형태들을  
←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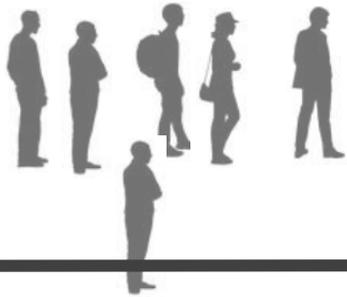
18~29세	사례수 (명)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긍정적	③ 약간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부정적	계
1. 투잡, N잡 등으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183	26.3	49.5	75.8	20.9	3.3	24.2	100
2. '플랫폼 노동'과 같이 여건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일	183	15.9	40.4	56.3	35.5	8.2	43.7	100
3. 프리랜서 또는 1인 사업자로 일 하는 것	183	27.8	48.4	76.3	20	3.7	23.7	100
4. 하루에 4~5시간 동안만 일 하는 것	183	46.1	40.4	86.5	11.3	2.2	13.5	100
5. 1년 중 1개월은 쉬는 형태로 일 하는 것	183	40.3	37.2	77.5	18.7	3.8	22.5	100
6. 주 3일 또는 4일만 일 하는 것	183	47.8	35.6	83.4	15.5	1.1	16.6	100
7. 직장의 필요에 따라 1년 중 몇 달 정도 야근을 하고, 나머지 몇 달 동안은 그만큼 단축근무를 하거나 1~2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형태	183	39.2	41	80.2	16.2	3.5	19.8	100

황세원(2020)

우리 각자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다르다면?



안정성  
체계적



사회적가치  
윤리성  
관계



자율성  
통제권  
N잡



전문성  
성장



수평적  
위라벨



정부의 역할  
(사회적 대화)



노동의 최저선 올리기  
소득 기반의 사회안전망  
일터 민주주의



## 마을에서의 '일'을 위한 질문

당신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좋은 삶'입니까?



## 마을에서의 '일'을 위한 질문

당신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좋은 삶'입니까?

'좋은 삶'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 마을에서의 '일'을 위한 질문

당신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좋은 삶'입니까?

'좋은 삶'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거기 필요한 '노동'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 마을에서의 '일'을 위한 질문

당신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좋은 삶'입니까?

'좋은 삶'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거기 필요한 '노동'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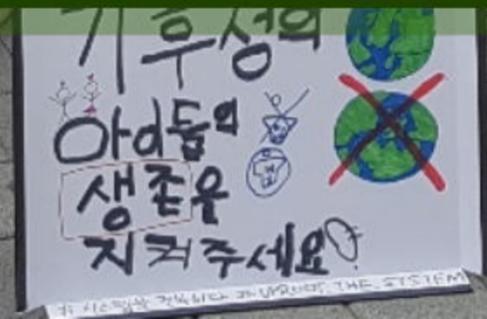
끝.



# 마을 활동 이야기

# 우리 마을에선...

• 주민의 관점에서 본 마을일자리의 필요성 •



나의 이름은...

대장엄마

마을지원활동가

송파PM(product manager)

당연한 실천가

송파마을활동가

이승희



1

## 대장엄마

아자맘..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모임...  
첫째아이를 낳고  
잘하고 있는지 항상  
불안하던 시절...



2/

## 마을지원활동가

우리마을



성남 논골마을 탐방..  
마을축제와 마을도서관이  
마을을 변화시킨 이야기.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  
되었으면..



3

# 서울시동남권NPO 지원센터 송파PM

연결하다

지역을 연결하다.  
시민사회과 공익.  
나눔과 공유.  
공동체와 네트워크...



# 4

## 당연한 실천가

지금 당장!

- 2021.09.25.  
서울기후위기 공동행동!  
'지금당장, 기후정의'  
-현실적인 2030탄소중립  
시나리오  
-신공황계획철회  
-기후정의법 제정  
-정부와 기업의 책임  
-기후위기의 최전선의 목소리

# 살리는 작은 실천

퍼스트페이지가 제안하고  
파기후위기시민행동(준)과 함께 합니다.



## 2021년 4월 캠페인 - 제로웨이스트

### 제로웨이스트란?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자는 운동이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자원순환보다 텀블러와 채식주의, 장바구니를 드는 개인의 실천들이 연결되면서 제품의 흐름을 바꿔 남비와 쓰레기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담론으로 넓어지고 있다. 즉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의 전환과 제도 개혁 없이는 지구는 없음을 실천하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 어떻게 참여하나요?

4월 캠페인 신청방법은 ...

- 가까운 지역에서
- 4인 모임으로
- 4월 22일(목), 23(금)가능한 시간에
- 1. @송파기후위기행동에서
- 2. 캠페인 참여 단체를 통해
- 3. 다양한 민간네트워크 SNS
- 4. 퍼스트페이지 07041902646

참여단체와 지역 안내

### 무엇을 하나요?

제로웨이스트 실천사례 배움과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시간 : 1시간  
준비물 : 집에 모아 둔 유리병과 담아갈 장바구니

- 워크숍 순서 :
1. 기후위기와 제로웨이스트 생각나누기
  2. 나의 제로웨이스트 단계는? (테스트지)
  3. 수프넷(천연염매)으로 세제만들기
  4. 플라스틱을 줄이는 생애주기별 실천 방법

# 송파기후위기시민행동

## 송파 기후위기시민행동(준) 5월 캠페인

하루 한 끼 채식으로 지구를 구하는

# 채 식 만 세

### 참여1

- ① 링크의 신청서를 작성해요
- ② 가까운 거점에서 밀키트를 받아요
- ③ 한 끼 채식에 참여하고 sns에 후기를 올려요
- ④ 인증하고 송파구 첫 번째 제로웨이스트샵 '세컨드 페이지'에서 대나무칫솔을 받아요 #송파기후위기시민행동 #채식만세

### 참여2

- ① 유튜브 "송파미디어공작소"를 검색해요
- ② 네 가지 채식요리 중 한 가지를 만들어요
- ③ sns에 인증샷을 올려요
- ④ 인증하고 송파구 첫 번째 제로웨이스트샵 '세컨드 페이지'에서 대나무칫솔을 받아요 #송파기후위기시민행동 #채식만세

# 자연드림 NO플라스틱 꾸러미받기

신청방법 구글신청  
(<https://forms.gle/KZKxLbNxcg8CDeLX7>)  
신청기간 5월 31일(월) ~ 6월 3일(목) 4일간  
인증방법 SNS에 영화 한 줄 감상평과 인증샷 올리기  
인증기간 6월 5일(토) ~ 6월 15일(화)  
기타문의 010.8947.5670



내일

모따이나이 키친

# 송파기후위기학교

- 기후변화는 정치다 -

주최: 동남권npo지원센터송파워킹그룹 주관: 퍼스트페이지

일시	회차	강의 주제	강사
8월 26일 (목) 10:00~12:00	1강	기후위기와 불평등, 정의로운 전환 (ZOOM강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위기정책연구소
9월 1일 (수) 10:00~12:00	2강	지구촌과 연대하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ZOOM강의)	김선철 전국기후위기비상행동
9월 8일 (수)	3강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이영경

01

### 광없는 추억의 뽑기

당일 자연드림매장 종이팩 수거 참여자

· 참여방법  
매장에서 종이팩 마일리지 적립이나 휴지교환 후 행사장에서 1인당 1회 참여

02

### 커피주방비누 만들기

11시~3시 정각 (총5회)  
매시간 선착순 3명  
현장접수로 진행  
10~20분 소요  
참가비 : 1,000원 (전액 나눔사업에 쓰임)

03

### 기증물품 수거

다함께 나눠요!

쓸만하지만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품을 가져오시면 조합이 굿월스토어에 기부 (기증품목 및 기준은 아래표 참조)

동남권NPO지원센터 공익활동사례학습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도 조합이 함께 진행합니다.

# 송파, 기후 행동!

기후위기로  
함께 지역을  
연결하다.

강한동남시민사회송파포럼.  
" 송파시민사회,  
기후로 연결하다. "

2021년 10월 27일(수)오후2시  
줌온라인/신청링크  
<https://bit.ly/송파기후포럼>

## 송파에서 기후위기를 말하는 사람들



1

기후위기를 알리고 실천해온  
송파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2

기후위기대응과 해결을 위한 활동 사례  
송파아이쿱 / NPO송파워킹그룹

3

토론 : 안성용 (위례시민연대공동대표)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송파시민사회의 연결과 소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최 :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사)커뮤니티허브공감

주관 :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송파워킹그룹, 송파기후포럼기



# 마을활동가는 좋은 일자리일까?

육아모임을 하면서 '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마을활동을 하면서 '내' 활동을 하는 시간은?

나는 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



한 마을이 변화하려면 ...?

마을활동을 같이! 가치!

☺☺

마을활동의 가치를 인정할 것!

☺☺

자원봉사, 자원활동, 공공근로, 공익일자리, 뉴딜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면, 기간이 경과하면 사라지는 활동들..

☺

## 공익활동 일자리를 제안하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예산안에서 행정의 틀에서 나오는 공공근로, 인턴, 뉴딜, 청년 일자리....

나의 공익(공공)활동은 제안하기  
내가 사는 마을과 필요한 사업, 내가 일할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

일자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상상하다!

〰

쓰레기 줍기 NO!



환경생태활동가

재활용분리수거 봉사 NO!



자원순환활동가(재활용코디네이터)

에너지절약 에코마일리지 활동



지역건물에너지관리사, 태양광발전관리사

마을활동가의 마을일자리 이야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일자리 대외확산 포럼

# 행동이 아시네요

Season2

2021년 10월 29일(금)

14:00~16:0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